朝鮮日報 夕刊 十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江北戰線

西大別山峻嶮突破 河南平原으로殺到

第五戰區敵軍戰意를完全喪失

【漢口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後五時現在의 江北大包圍 殲滅戰 戰況은 如左하다

我軍은 恐慌潰亂되어 北方으로 血路를찾자서 潰走하는 敵部隊를 直徑約三十키로 包圍網에 몰아넣고 그北方으로 移動中으로 殲滅戰部隊는 西大別山岳地帶로부터 逐次 河南平原에로 移動中이다

一、十一日 國際 北方地區에서 南北으로 呼應 包圍隊形을形成하야 殲滅戰을 西北方으로 展開中인 澤山 勝谷 松枝 吉川 川俣 爆甲 加藤 各部隊는 十一日午後五時 國際北方五十키로附近에서 軍鼠와가티 包圍해온 湯恩伯軍의 一部를 殲滅한後 微背西大別峻嶮地帶를 猛進하야 十二日正午에는 그北方十數키로線에 進出하엿스며 國際棗陽街道를 西方으로向해 驀進中인 角田部隊는 十二日正午 國陽東側地帶에 進出하야 我東西兩進攻部隊는 事實上握手를完成한셈이다

一、棗陽을무찌른後 東北으로 大旋回作戰을꾀하야 敗敵密集한 西大別山峻嶮에 突入한 倉林、青谷、永瀧、山室、行方、柴田 各部隊는 猛進 또猛進敗走하는 敵을到處에서殲滅하며 十二日正午지나 드디어 西大別分水嶺을 北으로突破하야 河南平原에 물밀드시 殺到中이나 이제 敵第五戰區에서는 抗戰組織을가지지 못하게되엿다 晝夜兼行으로 敗敵殲滅戰을 거듭하야 어제

一、棗陽東北方地區에서 敵九個師를 捕捉殲滅한 古賀、近藤、山田、南部、三浦各部隊는 同國民陣의 西方線을 堅持하야 到處에서 壯快한殲滅戰을 展開하며 東北方으로 猛進하야 그先鋒은 十二日아침에 벌써北方으로부터오는 敗敵의退路를 掌握하는等 同部隊의八面六臂의猛奮戰은 자못壯烈하다

【漢口十二日發同盟】江北山岳地帶에서의大包圍殲滅戰은 驚異的戰果를 거두고잇다 漢水以東의李宗仁軍과 第五戰區의精銳兵團인 湯恩伯軍二十個師는 棗陽東北方地區에서 全然組織도 連絡도잃고 오로지 我包圍陣網을 뚤코 逃走하려고 右往左往하야 大混亂을 어르키고 잇슬뿐으로 江北山岳은 屍山血河로 變하엿는데 이偉大한 戰果가 敵軍에게 준 政治的 軍事的影響은 말할수업시 深刻한바로 蔣政府가如何히 困惑하고 잇는가를 말하는 그一例를보건데

一、李宗仁은 勿論 蔣介石自身은 全然對應策에 對하야沈默하고잇다

一、宣傳만 能事로알고 虛張放送에 注力하고잇던 重慶政府의 데마放送도 數日以來 第五戰區의 戰況에 對하여는一言도 發表치아니하엿다

一、當面의 湯恩伯 李宗仁軍의 抗戰意思의 喪失은 勿論 決定的敗戰의 認識은 他部隊에도 重大動搖를이르키고잇다 蔣介石의抗戰力은急激히 低下하엿다

一、第五戰區潰滅로말미아마 第一戰區는南北으로부터 日本軍의重壓을받게되어 벌써敗將李宗仁 湯恩伯等을詰難하는소리가노파가고잇다

一、抗日政權部門內에所謂四月攻勢의徹底的失敗의認識이 漸漸濃厚하야 主戰論派도 그論據를喪失한것等을들수잇다 그리고徐州會戰武漢攻略戰後의狀況에서 推定하면 今次殲滅戰에서 潰亂한敵部隊의再編成은거의不可能한狀態이다 萬若强制編成을한다드라도 八月以前에는絶對不可能할것으로 觀測된다

海軍航空部隊 又復重慶을猛爆

【上海十三日發】艦隊報道部十三日午前九時發表

海軍航空隊는 五月十二日薄暮에 大擧重慶을 攻擊하엿다

【上海十二日發同盟】當地外人側에 들어온 情報에依하면 我海軍航空隊大編隊는 十二日午後七時 突然 夕闇에 저즌重慶上空에 出現하야 세번째徹底的爆擊을 敢行하엿다 我爆擊隊는 먼저嘉陵江北岸地區의 軍事施設에 集中爆擊을行한後 市外上空에나타나서 남어잇는敵高角砲陣地와 兵工廠施設을爆擊하야 散散히이를破壞하엿다 이때문에 市內外數個所에서 火災가이러낫다 我第二次爆擊以來 僅一旬만에 敵都는 또다시 修羅場이되어 收拾할수업는 大混亂에빠지엇다 支那側地上砲火도 前回보다 威力이 업섯다 荒鷲는 完全히敵首都를 制壓하고 悠悠히 夜空에 機影을 감추엇다

被害多大責任으로 蔣重慶市長罷免

【香港十二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重慶市長 蔣志澄은 重慶의 人口疎散을게을리한結果 過般我空爆에依하야 큰 被害를엇게하엿다는 問責을當하고 잇든바 國府는 十一日附命令으로써 마츰내蔣市長을罷免 後任에는 成都行轅主任賀國光이 任命되엇다

鼓浪嶼上陸陸戰隊 廈門殘敵과交戰

【廈門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前一時 鼓浪嶼에上陸하야 內厝澳에서 警備中인 我陸戰隊에對하야 十二日午後 突然對岸인嵩嶼의 亞細亞石油탕크近處에잇는 敵은 第三國權益의그늘에잇는 토ㅣ치카陣地에依하야 猛烈한機銃射擊을하므로 我軍도 即時應戰하야 千메터의水路를 隔하야 目下交戰中이다 이敵에對하야我 海軍機는 午後二時 四時半의二回에亘하야 雨雲을뚤코 猛烈한 爆擊을敢行하엿다 그리고 一部海軍機는大擧하야 午後二時 漳州 石碼方面陣地를猛爆 敵에大打擊을주엇다

廈門테로事件에關해 興亞院聯絡部當局談

【廈門十二日發同盟】鼓浪嶼의테로 事件에 關하야 興亞院廈門聯絡部當局은 十二日午後二時當局談을 發表하엿다

十一日午前十時廈門復興에努力한 商會長洪立勳氏는 鼓浪嶼에서 抗日테로犯人에게拳銃射擊을맛고 重傷되야 今朝드디어死亡하엿슴은 實로痛歎하여 마지안는바이다 蔣政權이 人道를無視하고 無辜한人民을殺戮하야 非人道的行爲로써 抗日을 絶叫함가든것은 天人이한가지로 不許하는바로 正義人道의 公敵이라하엿다 이에 對하야根據地部隊가 自衛上斷乎兵을 派遣한것은 當然한 處置이다 吾人은 이런테로事件의 根絶을期하고 모든手段을 講究하야 日本帝國의 뜻잇는바를明白히할생각이다

南支各方面猛爆

【○○基地十二日發同盟】南支陸의流鷲、佐暎、豐田、井上各部隊는快晴한十二日大擧 廣東省 中部의 南雄、翁源、湖南省南部의 郴縣及廣東省西江流域高要等各方面에出動하야 翁源方面에서는그北方新江岸에잇는 敵司令部를爆破하고 高要方面에서는 同地의西江南岸에잇는 敵軍事施設을爆破 敵舟艇多數를 擊沈하고 또 佐藤部隊의 加藤機는 翁源東北方地區의 渡河點附近의 道路에 集結中인 新型 軍用自動車百四十輛을 發見 猛爆을 加하고 關田各部隊도 이에協力 八十數輛을 粉碎한後 全機無事歸還하엿다

衝突事件頻發로 獨波關係險惡化

波蘭側,國境獨逸人을追放

【알쇼十二日發同盟】獨波關係는 몰로케駐波獨逸大使及 리프스키駐獨波大使가 各各任地에歸任한後도 依然好轉되지아니하야 波蘭政府는 獨波兩國間에서는 現在如何한交涉도하고잇지안라하야 오로지相對方의 發言을기다리고 잇는狀態이나 그사이에 카토빗市에서의 獨波人衝突事件、단치히市內에서의 波人壓迫問題等이잇서 事態는 漸次惡化할兆朕을보이고잇다 그리고 十一日獨波國境의 노뮈토미슬地方의 波蘭官憲이 獨逸人百五十名을 放逐하려하엿든바 獨逸人은 國境警備兵까지 衝突하야 兩便에一、二名式의 兵丁이重傷되엇다고 傳한다 結局 이百五十名은 獨逸側으로 放逐된模樣인데 波蘭政府는 이事件을 嚴秘에부치고잇다

【伯林十三日發同盟】國境方面으로부터의 入電에依하면 波蘭側의 獨逸少數民族壓迫은 依然根氣잇게 繼續되는 模樣인데 波蘭에서 追放되어 十一日中에 란스벨그市方面에 逃亡한者만三百名以上에 達한다고하며 이外波蘭官憲의 테로리즘에 견디지 못하야 各方面으로 逃亡한 者도 相當한 數에 達할것으로보인다 避難民의말에 依하면 波蘭側에서는 軍用列車에依하야 國境守備隊를 獨波國境으로보내고 잇다고한다 그리고 十一日에는 國境데누介데길附近 오부리河를 獨逸人漁父가건느려하엿슬때 波蘭國境警備兵은 이漁父가漁業許可證을 가지고잇슴에도不拘코 이를射殺하엿다한다

005028

英土兩政府間에 暫定的互相援助協定成立

【倫敦十二日發同盟】張伯倫首相은 十二日午後四時 英下院에서 英土交涉經過를 報告하여 英土兩國間의 地中海에關한 暫定的 互相援助協定이成立된 旨를如左히 發表하엿다

英土兩國은 兩國의 國家的 安全과 利益을爲하야 緊密한性質을가진 長期에亘한 正式協定을 締結하기로 意見이一致되엇다 그리고 英土兩國政府는 右正式協定이 成立될때까지의 期間에 地中海에서戰爭이 發端될만한 侵略行爲가잇슬境遇에는 互相協力하야 힘을 다해서 서로援助할用意를 聲明한다 이聲明은 어느第三國을 目的한것이아니다 英土兩國政府는 이와同時에 발칸半島의 安定狀態를 確立할必要를 認하고 右에關하여도 交涉을 繼續하고잇다

佛政府 新國防國債發行

【巴里十二日發同盟】佛政府는最近의急激한 國防費增大에 對應하야 新國防公債를 發行하기로決定하고 레이노-藏相은 十二日밤八時 라디오를通하야 全國에向하야 放送演說을하야 公債에 對하야 全國民의 協力을 要望 如左히述하엿다

政府는 國防費增大로 公債를增發하기로 決定하야 來十五日부터 新國防公債를 發出하게되엇다 佛國의 國債總額은 過去六個月間에 一割三分이나增加되엇스나 國債의地位는 依然安固하다 이는最近의法貨의 强勢와아울러 新國防公債의 堅實性을 表徵하고잇다 新國防公債는 佛國을 더强力하게하고 延하여는 全歐洲의運命을 左右할것이다

佛國下院 달內閣外交政策信任

【巴里十二日發同盟】佛蘭西下院은 十一日開會劈頭 달라디에首相의 外交演說을 聽取하고 十二日午後에는 外交政策에 關한 信任動議가잇섯는데 三百七十五票對二百三十票로써 달라디에內閣의 外交政策은 下院에서 信任을바덧다

百四回聯盟理事會 二十二日로延期

【주네브十二日發同盟】第百四回聯盟理事會는 來十五日 주네브에서 開會될豫定이엇스나 蘇聯政府其他로부터 開會延期의 要請이잇서 아브놀事務總長은 開會를 一週間延期하기로하야 二十二日開會할것을 十一日發表하엿다

時事解說 「유고」의動向

【유고슬라비아】[illegible] 殿下께 國行하야 方今 [illegible] 訪問中에잇는 同國外相「[illegible] 코비치」氏는 十日午後 [illegible] 내자宮으로 무首相을 訪問하고 伊유兩國交渉事에 對하야 會談한바잇섯는데 말코비치外相은 이會談에서「유고」가 防共協定에 加入할것을 表明하엿다한다 그리고 이와同時에 六月上旬 [illegible] 을殿下의 訪獨을 機會로 正式調印을 [illegible] 되리라는 [illegible] 하지고잇다。

◇

[illegible] 의 政局에 對하야한 [illegible] 부로 推斷하는것은 [illegible] 어지만 大體에잇서「유고」는 [illegible] 早晩間 獨伊樞軸에 參加하는것이라고 보는것이 [illegible] 것이다 周知하는바와 가치「유고」는 元來英佛以來 伊太利의 壓迫으로말미아마 自然히 佛蘭西와 [illegible] 近、그勢力圈內에 잇게되엇고 佛蘭西는 이곳을 中歐政策의 根源地로 삼는同時에 獨逸封鎖의 要領點으로 하여왓다 그러므로「유고」는 英佛陣營의 [illegible] 이다

[illegible] 事上 [illegible] 이나 [illegible] 그러나 유고는 英佛에 對하야 [illegible] 어다 近來 [illegible] 의 英佛의 [illegible] 政策에는 中歐諸小國家가 一般的으로 [illegible] 를 두지안는바어면 [illegible]「유고」라고 英佛에 [illegible] 어잇슬것이다 英佛에 依賴를 못두면 어데로 갈까 어느 편에 차라리「유고」를 分割하겟다는 獨伊의 무릅아래로 거어드는것이 도리혀 나을론지도 몰른다 이것이 中東歐諸小國家의 一般的苦悶이요「유고」의 [illegible] 것이다。

◇

「유고」의 [illegible] 實現되면 英佛에 對하야는 그만큼 不利하다 유고뿐아니라가 獨伊로 달린다는것은 結局「유고」一國만 외만이 아니고 그大勢를 말하는것으로서「루마니아」波蘭이도 한 반드시 英佛側으로 加擔하리라고 斷定하기는 어렵지안흘까 英獨、英佛西歐陣營의 最後勢力範圍를 決定하려는이때「유고」의 動向은 注目할點이다。

南總督一行 東京深川區朝鮮人部落을視察

【東京電話同盟】一年半만에 渡東하야 官民各方面과 事務打合에 忙殺하고잇는 南朝鮮總督은 帝都에서 半島勞働者들이 大體어떠한 生活을하는가를 直接視察하려고 十三日 午後二時 三橋警務局長、近藤秘書官、桐勳朝鮮協和事業課長、岩部社會局長、川島義之大將과 同行으로 深川朝鮮人部落을 視察하엿다 國防服의 南總督의 마음을 가장괴롭히고잇는것은 果然內鮮一體가 東京에서 完全히實行되어잇는가하는 一事이다 南總督의希望으로 部落에는 豫報하지안코 突然一行의 自働車를部落거리에 停車시켯다 모두가 옛은널로만든 陋屋으로 겨우二尺可量의 間道를 一軒一軒 巡視하엿다 [illegible] 보지못하던 一行에들 라서 部落의 婦人들은 몰려왓다 누구인지 어른에 朝鮮總督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하고 다만 珍奇한얼굴가려 南總督의 얼굴을 디려다본다 그러나 南總督의 부드러운 眼光에 아어들은 別로 두려워하지도안코 가까이 오다『며살이냐』等 南總督은 大滿悅이다 [illegible] 할 것이잇는바 內鮮一體는決코單純한 一面만보아도 나는 어느부락의 [illegible] 南總督은 感激無量하게말하엿다 그리고 南總督은 十五日午前九時廿七分 橫濱發『쯔바메』로 關西로向하야 名古屋、大阪에서 一泊 官民關係와 懇談을遂하고 半島人의會合에 出席한後 歸鮮할豫定이다

朝鮮特別志願兵 明年엔增募豫定

一見朝鮮軍高級參謀歸任談

新任 朝鮮軍高級參謀 一見大佐는 十三日午前十一時朝鮮軍擔當記者團에게다음과가튼이야기를하엿다

지난 一日부터 七日까지 陸軍省에서 열린最初의 師團參謀長會議에 出席하엿다가 日前에 歸任하엿다 會議開始後 第三日에 陛下께옵서 單獨拜謁의 光榮을 賜하옵시어서 참으로 恐懼不已하엿다 中央에서도 漸次로朝鮮의 事情을認識하여주어서 여러가지計畫을 議論하는데 매우容易하엿다 朝鮮의防空施設整備는 무엇보다도 急務이어서 그完壁을期하기로 되엇다 明年度의朝鮮志願兵募集은 훨씬大量으로 募集하기로되엇는데 中央當局에서도 이制度의 成果에 對해서는 매우注目하고잇섯다 아직 朝鮮의『어머니』들은 아들을 멀리보내기를 설허하는 傳統的觀念을 버서나지못하고잇는 現象인데 內地의『어머니』들을 본바더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내여보내서 新天地를開拓케하며 나라를 爲하야 身命을 바치도록하기를 바란다 朝鮮軍에서는 아프로 梨花女子專門學校等女學校를 通하야 이러한觀念을涵養하기에 積極的으로 努力하기로되엇다

要望 如左히述하엿다 政府는 國防費增大로 公債

學士院會員等에 午餐을下賜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에서는 帝國學士院會員과 今年度受賞者를 優遇하옵시는 御念에서 十三日 午餐을下賜하옵섯다 光榮의 長岡學士院長以下 四十餘名은 十一時前後하야 參內하엿다 宴殿千種間에는 東久邇宮殿下께서도 御臨席하옵셧는데 荒木文相 松平宮相以下 宮內官等을召하사 午餐을賜하옵셧다 午後一時지나 一同은 恐懼하야 宮中을 退下하엿다

事變下의朝鮮農村經濟

銃後農村振興策

農民生活安定化가最大緊急事

⑦ 李勳求

以上數回에 亘하야 筆者는 비록 着目일는지 몰라도 朝鮮農村經濟上 重要한 諸問題 即 農業土地와 此에關聯되는 農業生產上 問題 農業機構上 農業者 農業階級分化問題 農家收支問題 農家負債問題 農業生產物價格問題 小作問題等等을 解剖하야 그現狀을 明白히하고 問題의 焦點이 那邊에 잇는가를 探究하여보앗다 이와가티 農村經濟問題를 하나식하나식 들추어보기로하면, 例컨대 農業勞働及 勞賃問題, 農業保險問題, 肥料問題, 種子及 苗木問題, 農產物市場問題, 農家金融問題 等等을 말하기로하면 그數가 만허서 到底히 本論에서論議할수가업다 그러므로 爲先以上에서 論著한것으로써 結尾를 지으려고한다。

上述한바와 가티 經濟的으로 보아서朝鮮農村은 여러가지 悲觀材料가 만타 또 그것도 決코 事變下에 特殊情勢로 顯現된것이아니요 大概는 다歷史的原因과 結果가 綜合結成된것이다 그러나 特히 留意할것은 事變下에 잇어 農村은 都會의 特別히 軍需產業方面의 殷盛에 比較하여서 實로 寒心할 境地에 陷하여잇는것이다。 더욱히 農地分配의 不均衡 收支의不相償 負債의 增加 小作爭議의 頻發 等等으로 因하야 疲弊와 不安에 싸혀잇는 農村은 農產物價格의 比較的低廉으로 因하야 生活困難이 一層深刻化하는 傾向이보인다。

더욱히 小作農階級의 多大數는 해마다 春窮期를 當하면 食糧의不足으로 山野에서 草根木皮를 求하야 僅僅히 生命線을維持하는 現狀이다。 이와가튼것은 時局이 要求하는 銃後國民生活에 安定化와 및農產物의 增產擴充에 一大支障이 되는것이아니라고 할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農村疲弊의 振興과 多大數農民生活의 安定化는 刻下緊要한 急務라고할것이다

總督府에서는 昭和七年以來 朝鮮農村의 疲弊를 匡救打開하기爲하야 農村振興事業을 着手하게되엿다。 이事業의目標는 窮乏한 細農大衆이自力更生으로 經濟的穌生을 圖하려는것인데 그眼目은 不足食糧의 充實을圖할것 負債를 整理하야 其重壓에서 離脫케할것 現金收支의 均衡을 엇게하는것等으로 自給自足과 剩餘勞力의 利用消化를 營農의 要則으로 하엿다。 그래서 農家更生計畫樹立에關한 具體的方策을 세워가지고 從來實施하여왓는데 個個農家를 經濟指導의 對象으로하는 同時에 更生指導部落을 設定하여서『自力更生』을 서키기로努力하여왓다。 그리하여서 再昨年末數字로보면 二萬六百八十二部落 四十七萬一千二百二十四農家가 本事業의關係者로 되어잇다。

事變以來 朝鮮農村에서는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이 官의 指導下에 熱烈하게되어서 一時農村振興運動과 및그事業은 第二次的으로 意識을 가지는 嫌이잇는것가티보이엇스나 그러나 旣定의事業은 着着進行하는中에 잇고 近者에와서는 各道農振課長會議를 開催하는것은 勿論事變下에 適合하도록 이運動을 實行하려고努力을 하는것갓다。 그러나 이 農村振興運動과 및事業은 現下時急한 農村實狀에 對照하여보면 恒常緩慢不及의 歎이업지안코 더욱어 農村振興의 根本問題가되는 諸點이 疎略되어잇지 아니한가하는 感이잇다 換言하면 經濟的諸原則에 立脚하야 弊害의 根本的退治를 꾀하지안코 枝葉問題에 拘泥되어서 이것을 矯正하려고 애를쓰는것갓다。 그러므로 朝鮮農村의 困憊와疲弊를 匡救振興하려면 拔本塞源的인 經濟政策을 實施하여야할것이라고본다。

事變中에 잇서서 農村生活의 安定化와 農業生產의 擴充增大는 緊急事中의 緊急事다 農村振興事業과가튼것은 그效果가나도록 樹立된 計畫을 遂行하려니와 特히 事變과 가튼 非常時에 잇서서는 非常時的 農村經濟政策을 實行하여서 緊急한時局의 要求에 對應하므로 農村生活의 安定化와 農產의增殖을 꾀하지아니하여서는 아니될것이다 事實上 事變發生以後에 朝鮮農民이 軍用食糧, 軍馬의芻糧가튼것도 잘 割當된 數量을 供出하엿슬뿐아니라 貧窮한 經濟에서도 獻金 獻物 恤兵 慰問等事項에도 赤誠을 다한것은 世人이 周知하는 事實이어니와 그들의 生活을 安定케하고 그들의 產業을 振興케하는것이當局者의 責務가아니면 안될것이다、經濟警察이 實施된以來 都市商工業者의 一部徒輩가 犯則續出하는것을 보고 또 事變의結果로 累巨萬의財貨를 獲得하여서 殷賑繁榮하는것을 볼때 多數農民은 實로 慨狀이 可憐한바가 만타. 그러므로 農民自體의 奮勵으로 精神의振作 生活改善 消費의節約 貯蓄의勵行 勤保共助等等事項을 實行하야 自强을 圖할은 勿論 農村振興政策에 根本的革新과 擴正을 加하야 農民生活의 時急한安定을圖치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完)─

鈴木總裁後任에 久原氏를指名推薦

政友會傳統派大會準備

(寫眞은 久原氏)

【東京電話同盟】鈴木現總裁의指名으로 久原房之助氏를 第八代總裁로 마지하게된 政友會傳統派에서는 十三日正午부터 芝三緣亭에서 總務會를 開催하야 幹部會 常議員會를열고 鈴木總裁의指名을 傳한後 直時 來二十日 黨大會準備에 對하야 協議하엿다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鈴木總裁는 來二十日로써 任期가滿了되므로 傳統派長老의 希望을 容納하야 十三日九段의私邸에서 後任總裁로 久原房之助氏를 推薦 內意를 發表하엿다 이로써 政友會第八代總裁는來二十日의黨大會를기다려 久原氏가 正式就任하게되어 中島氏의 革新派總裁에 對하야 正統地位를 誇示하게되엇다

【東京電話同盟】政友會傳統派의 三土、久原、芳澤三代行委員、鳩山、川村、濱田各長老、岡田幹事長等은 十三日午前十一時九段의 鈴木總裁邸에 參集하야 一同은 鈴木總裁와 面接하고 三土代行으로부터 一同을代表하야 鈴木總裁는 오랜任期中 政黨를 위하야 또黨을 위하야 盡粹하엿슴은 實로 感謝하여 마지안는다 來二十日로써 任期가 滿了되므로 後任總裁指名을 仰하고저 今日同이 同訪한바이다 後任指名은 長老一致의 希望이며 또黨의 各機關의 意向도 指名을希望하는바이다 라고述한데對하야 鈴木總裁는 오랜任期中 不適任에도 不拘코 任務를 遂行하게되엿슴은 諸君의 協力의賜物이다 感謝하여마지안는다 自己의 任期도 近近滿了할터이므로 諸君의 希望대로 後任推薦의 內意를 傳하고저한다 即 自己로서는 政友會第八代總裁로서 久原房之助君을 推薦한다 하고 政友會第八代總裁로서 久原氏를 指名推薦하엿스므로 一同은 正午總裁邸를 辭去하엿다

人事·集會

▲山田忠次氏(遞信局長) 遞信局長會議出席次 渡東中 十五日午前八時京城驛着歸任豫定

▲岩男省三氏(遞信局監理課長) 事務視察次 十二日午後十時 京城驛發 咸興、城津、吉州地方에 出張 十五日朝歸任豫定

▲兪萬兼氏(忠北知事) 新任人事次 十三日本社來訪

▲咸大勳氏(本社出版部編輯主任) 十三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發 노소미로 奉天、新京、吉林、哈爾濱에約一週間豫定으로出張

八面鋒

今米穀年度 前半期에 朝鮮米消費量은一千二百萬石 後半期의 消費量三百萬石을 加하면 一千五百萬石。

◇

昨年度 消費量 一千五百萬石이란 新記錄을 그대로 維持한것이 朝鮮人 生活向上의 證左라하겟지만。

◇

一人當消費高는 不過 七斗三升一合 內地一人當 消費高 一石二斗에 比하면 五斗의差。

◇

그中에도 七斗三升一合이在朝鮮 內地人、朝鮮人의 平均消費量이오 朝鮮人은 四、五斗를 不過할것이니 生活의 差異는 아직도 甚大。

◇

內鮮一體는 生活의 平等으로부터 待遇의 平等에까지 가서 비로소 完成。

◇

商業學校와 工業學校의 中學校의 夜間制를 認可한다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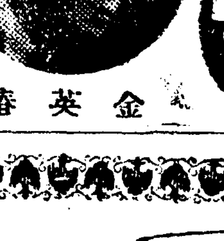
學校 한업이 只今가튼 入學難, 向學熱에 이것이 얼마나 緊急한 制度요。

白鶴 酒

高級社交場 パー 靑鳥
京城府本町...

안됩니다! 면두려버
帶下·月經不順·貧血
冷症·입덧 婦人科 病에
惠乃玉
一步前進한婦人科藥
全國有名藥店에잇습니다

普仁堂案內
藥草 醫生 補材 漢藥 痼疾
京城鐘路二丁目 普仁堂藥房

콜럼비아레코드
東劇映畫主題歌
紅桃야우지마라

金英椿

榮養素를補給합시다!
—疾病의豫防과虛弱體恢復을爲하야—
榮養素의補給이不足하면 身體의抵抗力이弱하여지는것이니 疾病은大槪이러한때에侵入하게됩니다。 口味가업서지고 消化가不良하며 些少한일에도疲勞를늣기게되고 恒常倦怠感으로괴로워하는분은 누구나크게警戒하지안으면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貴下는只今, 病, 特히結核菌의侵入이라는 可恐할危險에直面한까닭이니 貴下께무엇보다도只今必要한것은榮養素의補給이올시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人體에必要한 諸種榮養素를 適當히包含함으로 이것을服用하면 呼吸器를强化하고 消化機能을促進시키는等, 一言으로하면身體의諸器官에 活力을賦與하야 虛弱體의恢復을促進시키고 病의侵入을防止합니다。 그뿐아니라 病人의病勢惡化를阻止하는作用이優秀하므로 病人에게는勿論이오 一般虛弱體의人士에게도 醫學界의諸先生이特히推奬하는터입니다。
(本劑의信用에對하여는醫師諸賢께問議해주십시오)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奉天·臺北·天津
ネオトン
效果 本位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產前產後·榮養障碍·病後恢復期
包裝 小瓶(一個月分) 中瓶(五個月分) 大瓶(八個月分)

(全國有名藥房에販賣)

今夏八月一日을期하야 臨時國勢調査施行

戰時體制下國民의消費에必要한物資의數量、金額及 地域的分布狀況과配給狀況을細密調査

종래 국세조사는 법률에 규정된대로 십년에한번씩 대조사를하고 그중간인 오년만에 한번씩 간이한조사를 시행하기로되어잇섯는데 현하비상시를 당하야 날로변해나가는 그시세에응하야 국가백정의기본재료를 엇기위하여는 정부가필요하다고 생각할때마다 수시로여러가지를 할수잇도록 마련되어야하겟스므로 지난번 의회에 국세조사법 개정안이통과되어 이것이공포되엇스므로 정부는 이개정법률에따라 오는 팔월일일을기하야 전국일제이 전시체제하의 국민소비에 관한제일회 임시국세조사를 시행하기로되어 조선도 내지에 호응하야 시행하기로되어 삼십일드디어 조선 소화십사년 임시국세조사 시행규측을 제정발표하기로되엇다 이제그조사의내용을 보건대대개 다음과갓다

調査目的 현하전시체제하의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물자의 수량 금액과그지역적분포상황과 배급상황을 상세히조사하야 대동아건설에 필요한제반정책의 집안상시를 도옵고저 하는것이다

調査時期 시행규측제일조에따라 금년팔월일일 현재로조사하는것인데 이는여름철에한사한 때이므로 조사를하는편이나 조사를받는편이나 모두비교적편리한때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調査範圍 시행규측제이조에따라 조선안에 현재잇는 (1)물품판매업을 경영하는사람 (2)물품매매의 중개업을경영하는사람 (3)、법인(法人)조합(組合)등으로서 물품판매 또는 매매의중개를 하는사람 (4)、여관、요리점、음식점또는 이와가튼 영업을하는사람 이상에 해당하는것은 개인경영이나 대회사이나 또는관청의 직영이나물론하고 그경영체에대하야 모두조사를한다 다만 육해군의부대와 함선에 속하는것 또는 노점(露店)또는 행상을하는것은 조사하지안는다

調査事項 물품판매와 물품매매중개를하는것에대하여는 경영체의명칭、본점 지점별、개업년월、기업조직、법인은그자본금또는출자액、영업또는사업의종류、경영형태、종업자 조사기일전 일년간의 도매소매별 매상금액、지정된물품의조사기일전 일년간의 도매소매별 매상수량과금액、특정된 물품의 현재 재고수량을조사하고 여관 요리점 음식점등은 식점에대하여는 특히 이밧게 지정된 음식료품을 도매업자또는 생산업자로부터 사입(仕入)한 수량과금액까지 조사하기로되엇다

申告義務者 경영주또는 경영체를 대신관리하는 사람이 팔월일일현재에따라 팔월십일까지 수집하러오는 국세조사원에게 제출하면된다

課稅調査로는 誤解하지말라
大野政務總監談

임시국세조사 시행에 대하야 대야(大野)정무총감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지나사변이래 동아신질서건설에 매진하고잇는 중요한시기에 국민생활을 명백히 조사하지안흐면 안된다 이번조사는 종래의인구(人口)를주로한 조사와달리 이번은 물건을주로 조사하는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통게기술상 물품의 매상고 또는 사입고로한것인데 이를 과세(課稅)조사로 오해해서는안된다 절대로 과세와는 아모런 관계가 업는것을 잘인식하야 바른신고를하여주기바란다 이번조사는 세계에별로유례가업는 획기적대사업으로 이러한중대한조사는 비단당국자의노력만으로서는 도저히그완성을기할수업다 기어히반도민의 저의한 이해와각별한 원조협력을 바라마지안는다

旅行客沙汰 新記錄
四月中輸送旅客六十萬名激增

돈이흔해진탓인지 봄이가조와진 탓인지 여행객이 놀랄만큼 만하젓다 철도국의 조사를보면 지난사월 한달동안에 기차를타고 여행한사람은 사백팔십이만 륙천칠백팔십구명이어서 작년사월에비하면 오십구만오천팔백오십칠명이나 증가되엇다 여객뿐 만아니라 화물(貨物)의 발송수량도 무척느러서 사월한달동안에 일백사십만사천일백삼십팔키로(瓩) 이나되어서 작년사월에비하면 십만사천삼백사십사키로나 증가되어 조선철도국개설 이래 처음보는 굉장한성적을보이고잇다

馬夫小兒等五名이 驚馬에게被禍
阿峴町路上의狼藉

시내공덕정(孔德町)삼백팔십이번지에서 마차운반업을하는 변승봉(邊承鳳)의 마부 이춘봉(李春奉)(二〇)은 십이일 오후네시반쯤 아현정일백사십구번지의일백삼십이호아페 마차를세워노코잇섯는데동리 아이들이 작난으로 말에 돌을던지자 말이놀라뛰여 근처에서잇던 아이들을 치이께하엿는데 전기 변춘봉은 자기 말에게아이들이 치어서는 안되겟다고생각하고 아이들을구하려고 놀래뛰는말을 붓들려고달려들엇다가 그만 말에게 떠넘기고 발에지밟히어 중상을입엇스므로 구급차(救急車)로 의전병원에담어다가 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며 이바람에 여페섯던 아이네명도 중경상을입엇고 근처상점의유리창은 산산히부서저 일시대혼잡을이루엇섯다

溫井嶺에 郵便出張所

천하명승 금강산탐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야 체신국에서는 금년부터해마다 오월일일부터 시월삼십일일까지 온정령(溫井嶺)에 내금강우편소 출장소를두어 탐승객의 편리를도모하기로 되엇는데 동출장소에서는 십사일부터 각기각지와의 통화사무를 시작한다

溫井嶺과	通話料	呼出料
同內金剛間	三〇	一〇
同末輝里間	三〇	一〇
同內金剛長安寺間	二〇	一〇
同萬物相間	一五	一〇
同六花岩間	一五	一〇
同外金剛間	二五	一五
同神溪寺間	三〇	二〇
同隱仙臺間	三〇	二〇
同百川橋間	三〇	二〇
同長箭間	四〇	二五
同長箭間	四五	二五
同高城間	三〇	二〇
同通川間	四〇	二五
同庫底間	四〇	二五
同元山間	六〇	三〇
同淮陽間	五〇	二五
同新高山間	六〇	三〇
同釋王寺間	六〇	三〇
同昌道間	四五	二五
同金城間	五〇	二五
同金化間	六〇	三〇

安東新驛舍 今曉에大火
火因과損害等調査中

【安東支局特電】십삼일 오전영시반경 경경선(京慶線)경북 안동역의 새로 준공된역사(驛舍) 서쪽 공사구에서 돌연 불이일어나 총건평 칠백구십평방미(平方米)중 오백오십사평방미를태우고 소방대의 진압으로 세시경에야 겨우 불길을 잡엇다 손해와 발화원인은 방금 조사중인데 동역사는 작년칠월에 총공비 사만오천원을들여 짓기시작하야 시월에 준공되어 경경선개통과 동시에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조칠경부터 공사중이엇든것이다

얼골도마음도 검은掃除夫

본적을 경기도파주(坡州)에두고 부내금정(錦町)오십칠번지에 사는 윤학근(尹學根)(三七)은 이지음 연통소제하는것을 직업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든중 십일오전열시쯤 강기정(岡崎町)칠번지 상원의원(相原醫院)에서 굴뚝을쑤시다가 주인의눈을흘리다서 금고안에든 현금팔십원을 훔처가지고도망을하엿는데 바로엽집인 봉래소학교 만정(滿町)혼도의집에서도 도적질을하엿스므로 두피해자의 신고로 용산서에서 이를 붓들어다가 취조중이다

女子는매만 마저야하나

한정(韓町)이십팔번지의 십팔호 과물중개업 김대영(金大榮)(三一)은 항상 자기처정숙자(鄭淑子)(二一)와 싸움을하고 뚜드리므로 정숙자는 견디다못하야 파출소에가서 말을하야 설유한일이잇는데 십이일 오전열한시에 또 안해를따리자 염천에사는 박봉님(朴鳳任)이라는 여자가 와서 말리자 요전날파출소에 말한것도 박봉님이한것이라고 오해를하고 함부로따리다가 서대문경찰서유치장신세를 지게되엇다

遊廓에서豪遊
남의주머니털어

자깐에서 남의주머니를 털어 …

"皇軍의苦楚는 想像以上이엇다"
朝鮮文壇使節三氏歸還

지난사월십사일에 조선문단을 대표하야 북지황군의문학을 떠난 문단사절일행김동인(金東仁)씨 박영희(朴英熙)씨 임학수(林學洙)씨등세명은 한달동안을 북지제일선에서 가진고초를 겪거가며 용감무쌍하게 활약하고잇는 황군을위방방문하고 예정과가티삼 십삼일오후두시 경성역착렬차로중 대한임무를마치고 무사히도라왓다 역두에는문단인 친지 가족 들다수가 마중을나와 성황을이루엇다 황군과가티 고초를맛보고돌아온 세분은 번가리가며 울과가티 감상을말하엿다 『북경(北京)서 차를세번이나 가라타고 제일선인 운성(運城)까지가서 운성황궁으로 황군을 위방방문하엿습니다 떠나기전까지는 그저황군의고초를 눈으로그려보고 그처럼고생을을놀랏는데 이번 실지로 우리눈으로본 황군의 고초는 상상이상이엇습니다 우리들은 아프로는 힘자라는데까지 총후여러분에게 그정경을전하야 드리고저합니다』 운운 (사진은 경성역에도착한일행)

참새굴레씨울
前科二犯의少年竊盜被捉

재령군북률면석교리(載寧郡北栗面石橋里)에 원적을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돌아다니는오희돈(吳熙敦)이라는 열아홉살바게안된소년은 절도와사기전로 열다섯살때 기소유예를받은후 또가든죄로개성소년형무소에서 이년의징역을치르고 작년시월에 출옥하자 또다시수만흔절도와사기 취재를하고는 이십전에세번째감옥보면 올정월해도사리원(沙里院)소학교에서 삼십원짜리 자전거한대를훔친것을비롯하야 어월초순 신막(新幕)역아페서 삼십원짜리 자전거한대 사월오일 시내 관철동 모여관에서 유십원짜리 축음기와 현금 십일원 사월중순 서사헌정에서 이십원짜리 자전거한대 사월십구일남미창정(南米倉町)에서 삼십원짜리 자전거 한대 사월이십일과 마다 동 이십이、삼、사일등 거의 날마다 자전거를훔처냇는데 자전거를훔처다가는 그대로 팔어만먹은것이아니라 그것으로 또사기를하엿다 그한예를보면 사월이십일에 훔친삼십원짜리 자전거를 장진정오백십칠번지의 김유말(金有末)자전거포로 가지고가서는 잠을쇠와 짐바지를달어 달라고하야 이원이십전에마끼고 자기는지금 근처잇는중촌상회 점원인데 대단히바쁘니자전거를 고칠동안 달른자전거를빌리되십원짜리를가저올리더니 거스름돈칠원팔십전을내리라고하야 바더가지고는 그대로 도망가서 그자전거도 또그런식으로하엿다 이리하야 그피해액은 상당한 수에달하리라하며 용산서에서는 이런 범죄는 처음잇는 것이라고하야 철저히취조하고잇다

貨物紛失事故續出

요즘 철도에 하물이 만히올리 드는데따라 행방불명되는 하물도 무척만흔데 지난칠일에 경성역에서 경원선 덕정역(德亭驛)으로보낸 나온지일곱달된 『세파드』 숫놈한마리가 감쪽가티업서저서 경성철도사무소에서는 방금 사방으로 찾는중이다 이런일이 업서지는것은 드른일도서 아마경성역에서 기차에 실어노흔동안에 어디론도망간것이라고 한다

光州、鶴橋間
運轉時刻一部改正

오는십륙일부터 광주(光州)와 학교(鶴橋)사이와 송정리(松汀里)와 학교사이와 송정리영산포(榮山浦)사이의 열차운전시간을 일부 변경하야 운전하기로되엇다

스포-츠 뉴-스

延專主催와本社後援 中等武道遂開幕
劈頭에中東軍이徽新軍을擊退

연전주최와 본사후원의 제九회 전조선중등학교무도대회는 十三日午後一時四十分부터 연희전문무도장에서 [illegible] 武道長久 [illegible] 大會長元漢慶氏 [illegible] 中東、培材、徽新 [illegible] 中央等八個校代表의入場式이잇서 [illegible] 그리고選手代表松中의 [illegible] 審判 [illegible] 競技說明이끗나니 어로써入場式을 마치고中東對徽新의第一回戰으로부터 開幕되엇다

【第一回戰】 中東 2-1 徽新

世專優勢
明新軍決勝에

【平南安州特電】關西體育會主催의 第十五回全朝鮮庭球大會 第三日은 十三日午前十時부터 [illegible] 林里球場에서 熱狂的人氣속에 青年團決勝戰으로부터열린바 미이날 귀마음까지의戰績은다음과가트며 最後決勝의날을 하로앞두고 깨입

【中等部準決勝戰】 明新 2(2-0, 0-1)1 松都

(主審李良龍 副審 [illegible] 李致淳三氏) 午後零時二十分부터 明新코어프로 開戰된바 十四分에 明新RH 安基洪君이 負傷하야 退場하니 十名이 對戰케되엇스나 明新優勢裡에 激戰中 後半十四分에 松都RW 劉宗德의 패스를 RI 金應變바더 失하야

【青年部準決勝戰】 延禧OB 0(0-0, 0-0)0 歐米

(主審 [illegible] 金元 [illegible] 三氏) 午前十時廿六分부터 延禧코어프로 開始하야 延禧側에 드러가서도 得點업시 抽籤으로 延禧가 이겻다

【青年部準決勝戰】 世專 (1-0) 平壤

(主審張湖五 [illegible] 金元 [illegible] 三氏) 午後一時四十七分에 開始된바 二十六分에 世專 LW 金好坤의 失으로 처음을지 은다음 後半戰에드러가 激戰中 이날아침부터 가랑비가나리엇스나 正午에이르러 씻슨듯이 개이여 絶好의컨디숀이다 一點을捕回하니 一對一同點된後 十九分에 明新LI 金友泳의 妙技로 또一點을 加하야 二對一로 明新軍이이겨서決勝戰에 느러갓다

各都市對抗卓球選 各邑出場陣容決定

朝鮮各地에서 一流名網을망라하야 열리는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八回全日本都市對抗卓球大會 朝鮮最終選手選은 來二十一日 午前十時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講堂에서 平壤、咸興、鎭南浦、開城、大邱、仁川、元山、海州등의 大都市에서 出場하야 朝鮮代表權을 다투기로 되엇는데 當日은 一大盛況을 豫期하고잇다 [illegible] 十餘、學生小人十錢을 밧기로되엇다한다

▲平壤府=▲監督=馬俊豪 ▲主將=曺明煥 ▲選手=金永煥、黃致玉、金炳鉉 尹喆彬
▲海州府=▲監督=金容選 ▲主將=孫基禎 ▲選手=金相默、鄭光根 元容植 崔俊敏 朴鍾麗
▲仁川府=▲監督=鄭川 ▲主張 寺田 ▲選手=上村 三戶 高橋
▲開城府=▲監督=朴永福 ▲主將=崔根善 ▲選手=吳殷鳳 閔寶植 洪性範
▲大邱府=▲監督 兼主將=鄭敬鎔 ▲選手=李鍾得 梅津 李泰 ▲咸興府=▲監督 兼主將=朴益 ▲選手=大島 門屋 横山
▲鎭南浦府=▲監督=羅基李 ▲主將=元貞淳 ▲選手=金甲淳 余鍾植 梁龍煥
▲元山府=▲監督兼主將=李九美 ▲選手=尹基直 金京煥 崔龍得

學生庭球大會
明十四日에開幕

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의今年度學生選手權大會는 明十四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擧行될터인바 參加組는各專門校의 優秀選手五十二組에達한다 그中에는 覇者高商의 安井、張剛組를 비롯하야 延專의 晋五、李仁俊組、普專의 申東勝組、漢醫組等이有力한優勝候補이다

고무製品運動用具 道內配定方針決定

고무제품에대한 배급통제의 여파를바더 고무로만든 운동용구에도 까지通制가되어 전표제도를 실시하게되어 얼마전 총독부에서 조선체육협회의 손을거처 품목별로 각도배급량을 일일히정한 배급량의 결정통지를바든 경기도에서는 다시이것을 도내각부군에 나누어주고저 그배급량에 대해서 연구중이던바 심상일 도체육협회와 조선연식(軟式)정구연맹 조선정구연맹 경성연식야구연맹 조선축구협회 조선배구(排球)협회 조선럭비축구협회 간부사이에 양해가 성립되어 다음과가티 배급량을 결정하엿다 즉 오월분으로 경기도가 배급을바든 고무로만든 운동용구는 연식정구뽈이 이백구십오타(打) 경식(硬式)정구뽈이 삼백오십칠타 연식야구뽈이 사백칠십오타인데 이것을 다음과가티 배급하기로된것이다

▲軟式庭球	
京城	一六八打
仁川	二〇打
開城	一五打
水原	一〇打
其他	八一打
計	二九五打
▲硬式庭球	
京城	二六七打
仁川	九打
開城	三打
水原	三打
其他	三打
計	三五七打
▲軟式野球	
京城	[illegible]
其他	[illegible]
計	四七五打

즉 배구、농구의축구뽈과 고무로만든 운동용구는 아직각도배급량이 결정안되엇기 때문에 경기도내서도 따러서 이번에는결정되지못하엿다 그리고 유월분부터는 배급표준을 다소곳처서 정구에잇서서는 코트표준으로 공을주기로할터이나 이번배급에빠진 사람은 코-트이름을 곳처서 도체육협회에 신청하기를 바란다하며 또유월공은 유월부터는 배급량외에 새공과바꾸어출러이므로간 직해둠이조타 전체로보아 금년치는 작년에비하여 다소줄기는 하엿스나 아직은각상점에 상당한수득이 잇슬것이므로운동하기에그다지큰지장은업스리라고한다

遊廓에서 [continued]

가지고 유곽에서 백만장자의 외아들노릇을하다가 유치장에 들어간소년——십삼일새벽 본정서에서는 신정(新町)각호(角好)유곽에서 자고잇는 동천(通川)출생 이석근(李錫根)(二〇)이라는소년을 검거취조한결과 그는 구일밤 원산에서 자동차고오던중차간에서 남의주머니에서돈이백원을 훔처가지고 십일아침에 인경하야 밤마다 유곽에서부잣집외아들이라고 허풍을 불며 놀앗섯다고한다

紙品가지고 堂堂開業

종이상점 점원두명과 짜고 물건을 훔처다가 장물로 상점을 버려노코 일용세여이삼일아침 서대문서에 잡히어 취조를받는자가잇다 즉 신당정(新堂町)삼백사번지 박희정(朴熙貞)(三〇)과 남대문통(南大門通)오정목 조창(朝倉)종이점의 점원 배금영(裵金永)(二〇)의 세명은 금년일월부터 서로짜고 박히정은 자기집에다 가 종이와 문방구도매상『기무라』상점이라는 간판을 부친다음 김파강이 훔처내는 양지와 문방구등을 소매상에 넘기다가 서대문서에 전부붓잡혓는데 조창종이점의피해는 약이천원이다 또한 전기『기무란』상점에서는 본국 칠천삼백삼십원이라고 전화까지 가진것처럼꾸미고잇섯스며 실일아침 서대문서에서 형사들이 압수한종이와 문방구가 산데미처럼 싸혀잇섯다

천하호걸

(재)호적이 잘못되어 어머니가안해로되여더라나 ▲지금쯤이야 이런일이 별로업지만 예날에 이런일이 수두룩햇더란말이지 ▲그러면 이렬어쩌면조흐냐고 호적고치는 수속을밟으려고햇더니 우선어머니와의이혼소송을먼저해노후다음에 또 어떠케하라고 햇다던가 ▲잘못은 누가어떠케햇건 모든것은 법으로처리하는것이 법인데 법에 흠잇거던 법으로 다스리는것은 물론마땅하다는 것이다 ▲이것이번령인지 소위픽게인지는모르나 해결방책은 이것박게업다고하야 한편장송(?)된것도 여북치안흔데 다시어머니와 이혼소송을하지안흐면 안되는죄를 범하는것을 되풀이햇다 ▲이것이 법은들어업는법인데 이런법도잇기때문에 소위판리의독선(獨善)도 더잇슬수잇슬것이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天津의 南方에서 東進하고잇고 四國近海에는 不連續線을 同伴한低氣壓이 北東으로 進行하고잇다 高氣壓은 蒙古에서 滿洲로 퍼지고잇고 小笠原島附近의 海上도 氣壓이 놉다 半島의 中部以南은 개인편이고 北部는 흐리고 元山에는 小雨가잇다 滿洲南部는 흐리고 北部는 개이고 內地는 비가 오는편이고 九州、北海道는흐려잇다

豫報 오늘밤은 흐리고、내일은 흐、다 가랑비가오다가 날이개이다

十二日最高	二一度四	
同 最低	五度五	
十三日朝最低	八度八	
同 正午	一九度九	

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 노래운부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六時三〇分 趣味講演 ▲七時三〇分 講演▲八時 라디오코메디 ▲八時三〇分 (獨逸伯林으로부터) ▲八時四〇分 (伊太利羅馬로부터) ▲八時五〇分 南道歌謠▲一〇時〇分 中等國語講座 ▲九時一〇分 西道歌謠 ▲一〇時

第二放送 ▲午後六時(東)라디오뫄리에티 ▲六時二〇分(東)어린이新聞 ▲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三〇分 (東)講演 ▲八時 (東)合唱과管絃樂

國際放送 ▲八時三〇分(獨逸伯林으로부터) ▲八時四〇分(伊太利羅馬로부터) ▲八時五〇分 (東)講談 ▲九時一五分 (東)長唄

第1回 朝鮮소리懸賞競唱大會

今夜 第一日 午後八時開幕 於府民館大講堂 [入場料五十錢均一]

本報讀者特別割引證 本券持參에限하야 三十錢으로

廣告

淋菌絶滅의爆擊部隊出現

パラミド

藥品의選擇은文化人의常識의하나입니다

淋疾은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疾患中에 가장頑敵이엿슴니다。그러나이 强敵도 本劑에게는 易히降服하고 만것입니다。淋疾을 不治의 病이라한것은 벌서 옛날이야기입니다。本劑를 三四日、느저도 一週日間服用하면、完治되오니 安心하시고試用해보십시요。

適應症 淋疾、丹毒、敗血症 産褥熱、腦膜炎、膀胱炎、尿路疾患、腎盂炎、化膿性中耳炎、化膿性淋巴腺炎等

包裝 粉末 二五瓦 五〇瓦 一〇〇瓦 二〇〇瓦 錠劑 二〇錠 一〇〇錠 五〇〇錠 注射液 一〇cc五管 一〇cc一〇管 一〇cc五〇管

(金剛)

製藥原料로本劑를使用코자하시는 業者諸位는特別交涉하야주십시요

製造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ノ五七 支店 大阪・奉天

K.P.4

慢性胃腸病にはアイフ
(慢性胃腸病에는 아이후)

過勞と不攝生が胃腸を弱める!
(過勞와 不攝生이 胃腸을 弱케한다)

工場病이라고까지하든呼吸器疾患에代身해서
胃腸을알는이가 最近急激히 增加되엿습니다

이것은勿論、殘業、深夜業의强行等、過度한勞働에 因한疲勞、睡眠不足에加해서 食事時間의不規則、過飮、過食、偏食가튼 不攝生에基因하고잇는것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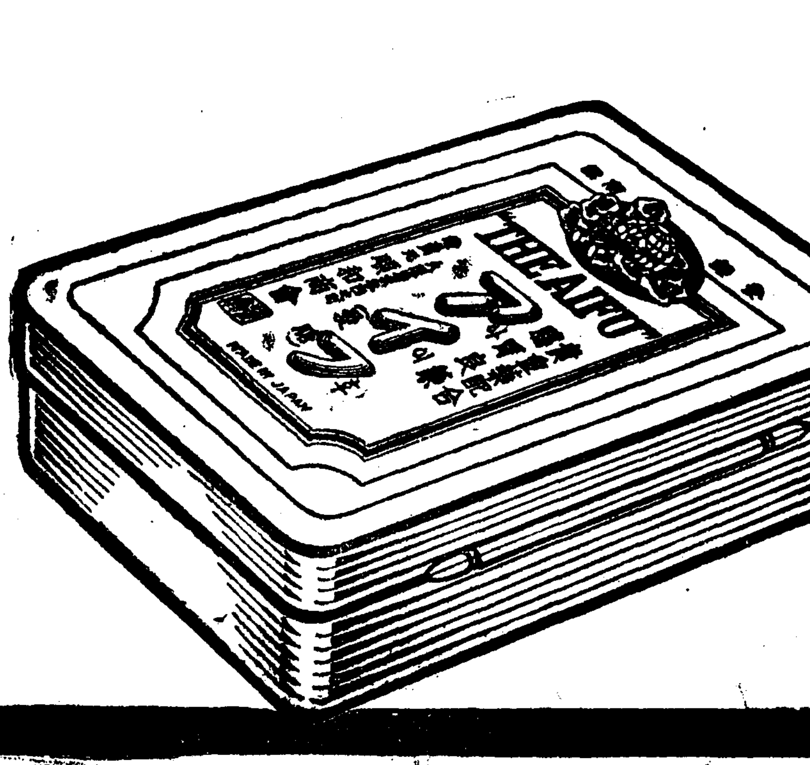
事實、胃腸에無理한 負擔을課하거나 刺戟을加하면、粘膜이거츨어저서、炎症을이르키거나、胃腸筋이弛緩해서 收縮作用이衰弱해지거나、分泌神經이興奮해서、胃液過剩症이나、胃酸過多症을이르키는故로 胃腸運動의圓滑을缺하고、消化酵素의 分泌를妨害하는等、各種의障害를招來하는것입니다。

食欲이잇서도 마음대로 먹지못한다든가 아무것도 먹잔을때에도胃와下腹이 抱滿해서무겁고

가슴쓰림、건구역、트름等 이날뿐아니라、振水音과腹鳴이나서 空腹時에는 痛症이잇고泄瀉、便秘로辛苦하는……等等은 모두가 이때문인데 放置해두면 慢性症으로 轉하거나、潰瘍이나癌腫을誘發해서 일을 全혀放棄하지안흘수업는 不幸에빠지게될지도모르는것입니다

그런故로、이러한 症狀의念慮가잇는분은、速히治療藥アイフ를服用해서、適正한治療와 周到한攝生에依하야 病魔의侵蝕을 極力防止하는것이緊要합니다。治療藥アイフ에는病源、對症、二重으로作用하는機能이잇서서、主藥이胃腸內部의病變部에 沈着해서、炎症을治癒하야、粘膜을强化하고、弛緩을緊張시키고 分泌와蠕動機能의 異常을調整하는同時에、腸管內의有毒物質을 吸着해서體外로排出시키는等、廣汎한病源治療를營爲하는一方、가슴쓰림、트름、건구역、胃痛、泄瀉、便秘、嘔吐等의諸症狀까지도、消退시키는故로 食慾은늘고、消化는進捗되는等、胃腸機能이自然히快調、活潑케되여、元氣健康을恢復시킵니다。

005029



定價

[illegible]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illegible]十一日分	五圓

胃症에는特製アイフ
便秘症에는加減アイフ

◀全國到處의有名藥店에잇슴▶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illegible]
大連 大連市山縣通九八番地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家庭

문제의 파ー마넨트
동양머리가 곱슬머리로, 심한건 몰까지드러
단발흥보던시절은 넷날

조선에도 가지가지의 미용술과 화장법이 유행하고잇습니다 한때는 단발이라면 소위「모던껄」이라고하야 일종 이단자와가티 보아왓는데 언제 단발은 소학교나 여학교에서 제복제모와가티 취급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흥진머리는 적어지고 여삼년내 대유 작년부터는 부쩍「파ー마넨트」가 유행하고잇습니다 대체 조선부인의 머리는 어떠케해야 조흘까 이에대한 각개인사의 의견을 듣기로 하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육칠년전 단발이 일반화해젓다고 봅니다. 소위「오깟바」란것이 일본내지나 조선서 유행햇습니다. 이것은 김활란(金活蘭)씨나 최승희(崔承喜)씨가티 그냥 잘러가지고 뒤를 올려치는것인데

머리의

「파ー마넨트」란것은 전기로 본바탕을 지저 제 변하게하는 겻어고 「마세루」는 그냥 「고데」로 지저서 「웨이브」를 만드는것입니다. 조선부인들은 그얼굴생김과옷이 「마세루」가 더 어울리는데 「마세루」는해노흐면 다소 인공적(人工的)인태가 보이나 우아하야 불란서적(佛蘭西的)입니다. 「파ー마넨트」는 주로 양장에 어울리는데 생생하고 어지적이 되어 「아메리칸」젊은 부인네들 「타입」이라고할가요. 어쨋든 현재조선부인들은 「마세루」를 만히하는데 이경향은 아프로도 계속되리라고봅니다.

미용

이러단발은 본대 으로볼때는 그다지 조치못하고 또 일본내지에 「요시야노부꼬」씨나 조선에 김활란씨나 우리 여류선구자들이 만히하던것으로 도저히 일반화햇다고는 볼수없습니다. 지금은 여학생들이 그냥단발을하고 최승희씨가튼경우는 그의독특한 경지이니까요. 그리고 한삼년내로 조선안에도 부쩍는 「파ー마넨트」와 「마세루」는 금년드러서는 거

손님

「마세루」나 「파ー마넨트」머리엔 특별한 「타입」이라는이 보다 대개 자신에 요구하는것을 잘하고 도며 용사가 그분의 얼굴을보아 거기에 맛도록 하니까 특별한모양이업습니다. (美容院 ...氏 談)

단조미게트리는 근대적감각
畫家 張勃氏談

미술하는 사람의눈에 「파ー마넨트」나 「웨이브」가 어떠케 보이느냐구요? 나는 대체로 꼽게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전식대로 가르마를타서 기름으로 윤을내고 다드머서 쪽찌는것은 예전옷과 풍속엔 어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옷감이 취미 엄중 현대적으로되고 치마에 고무신을 신히도 여단가 근대적 감각이 보이는데 머리만 예저쪽으로하면 단조하기 짝이업지안켓습니까. 그리고 모발(毛髮)을 정리하는 의미로도 「파ー마넨트」는 상이업는것갓습니다. 조선옷과 조선부인네들 얼굴에 어울리느냐구요 내생각엔 문제업시조화된다고봅니다. 그러타고 나를 「파ー마넨트」장려가로 보아서는 다소 곤난합니다.

동양여자용모에는 꼭필요치안타
梨花女專校長 金活蘭 氏談

내가 단발햇다 다시기른 경로는 간단합니다. 처음단발하기는 지금으로부터 팔년전 구라파(歐羅巴)로 여행하다가 지중해안(地中海岸)어느항구에 배가닷엇슬때입니다. 토인여자들이 풍속으로 해엿서 뱃전에와서 동울달라고 구걸하는데 그들은 전부걸고숯이만흔 머리를 중중따어서 아무러캐나 머리에 돌넛드군요. 그더운열대에서 그들의 만흔머리와 생활을볼때 나는 나도모르게 내머리를만저보앗습니다 내머리역씨 그러케 숫이만코 뒤에다 커다라케 똥지안 ... 엇겟습니까 나는 빼가 어서 「끝세이온」항구에 닷기를 바랏습니다. 그때서 양장이볼소에 가서 머리를짓겟습니다. 이게내단발의 최후이고 지금다시기른것은 어제 배나이 사실이라 인제 좋흔일이 행세를 해야하겟기에 길른것판입니다 역시간편하지마 찬가지구요. 「파ー마넨트」는 동양여자의 체격, 용모, 모든것에 어울리지안는다고 생각합니다.

長篇探偵小說 魔人 【[illegible]】
金來成 作 崔根培 畫

새로운展開(一)

오변호사의 이 비범한 상상력과 풍부한 엽는 치밀한 논리는 마침내 영이살인(一人三役)—여섯째와 강수일과 유불란—이 세사람이 모두 동일한 인물이라는 실로 상상할수도 없는 놀라운 사실을 여실히증명하였다.

이 자라지 한번 스스일보에 발표되자 세상은 마치 버루눈아래서 폭탄이 터진것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하야 청년변호사 오상억의 은 그야말로 일조일석에 민중의 영웅이 되고야 말엇다.

「오상억! 오상억!」

유불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상억은 기억하였다. 그만큼 이것은 세상이 막강의 호의로 마저드리고저 한 유불란의 정 자선이 설상은 어 사건다는 굉장한 편지를 매고 잇섯다는 놀라운 사실에 그들은 한번 머리를 돌지안흘수 업섯던 것이다.

멧이 이러듯 되고보니 유불란에 대한 세상의 신엄이 점점 떠러저가는 반면에 변호사 오상억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날로 커지기 시작한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엇다.

세상의 여론은 점점 두파로 갈라지기 시작하엿다.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은 유불란이가 아니고 오상억이라는 파와

—아니다, 결국은 유씨의 손으로 해결될것이니 유씨는 한시바삐 나타나서 자기자신을 변명하라는 파엿다.

어리하야 유불란에게 호의를 가진 자와 악의를 가진 자의 하타는 본론지줌이 점점 넓게 변하여젓다. 더구나 오상억 변호사가

—악마의 정체? —

라는 표제 밑에서 그러한 논리를 전개시킨 그림 뒤를 써어보지 안헛다해도 오상억 변호사와 복수귀 사이에는 그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잠재하야 잇다는 것을 암암리에 표시하고 잇는것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의혹에 사로 잡힌 사람은 파연 업섯던가? ……

오상억 변호사의 이 어마어마한 추리문에 접하는순간, 그의 치밀한 관찰력과 풍부한 공상력을 가장 찬양하야 전폭의 신임을 가지고 그를 마저드린 고저 한 사람이 두사람 잇섯스니 그 하나는 임경부요 또 하나는 사건의 주인공인 주은몽 그사람이엇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어떠한 근거는 업섯다 치드라도 자칭회가 어선배란 인물파 복수귀 해월이가 혹시 가튼인물이 아닐까? ……하는 공상에 사로잡힌 적이 잇섯던 임경부가 아니엿던가!

마인 해월이와 회차게 싸워 나갈 자는 오상억 변호사 박게 업스리라는 실로 임경부로서는 최상급의 감탄사로서 그를 찬양하여 마지안헛다.

임경부가 이처럼 최상급의 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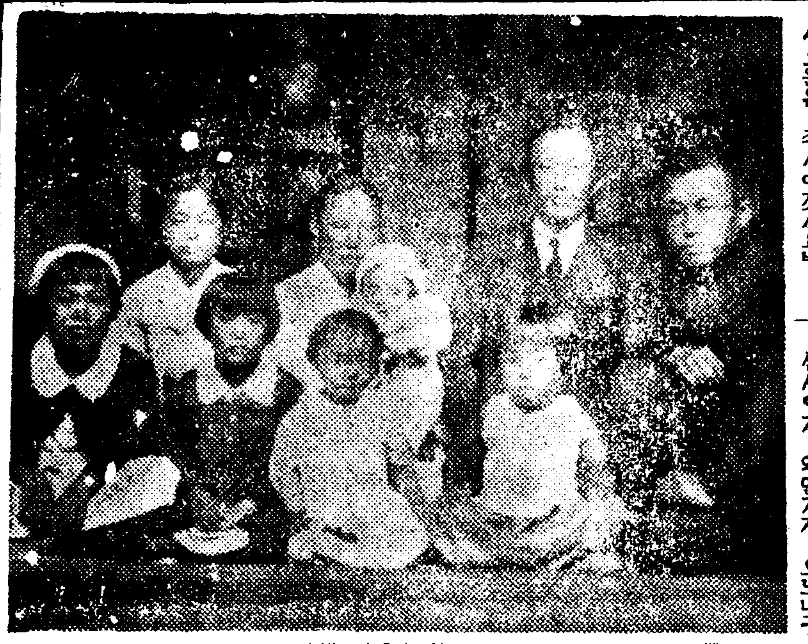
어찌하리까

본보의 「어찌하리까」란은 늘 딱한문제에부디처서 헌민하는 여러분의 의론을마러서 헌밋는데까지 친절한 해답을 해올려왓거니와 그동안 중단되엇든것을 여러분게속하게되엇습니다 대답해주실분은 소설가 이태준(李泰俊)선생과 성신가정여학교(誠信家政女學校)교장 이숙종(李淑鍾)선생 두분인데 어두선생께서는 그풍부한 실생활의 경험과 관찰파식견을 기우려서 여러분의 조흔길잡이가되어 주실것입니다 (사진은 바른편이 이태준선생 외편이 이숙종선생)

생활의 십자로에서 방황할때 당신의 번민은 이리로물으시오

문의규정
1、엽서에써보내시오
2、제목에「어찌하리까」라고적어서본사학예부로보내시오

"루소오"식자연교육에
병치레업시 잘도커가는 칠남매
하느님은자복자를돕는다
漢城商業學校 李性求氏夫婦談



「아부지 독일어책이 왓는데 십오원은 주서야겟서요」

「아부지 나 월사금 언제? 선세이자 왜안가저 오느냐구」

「난 운동회가 잇다 꼭조는데 얼는 하나사주세요」

「엄마 빠나나....홍홍」

×....×

막약단지시는데 ... 한성상업학교(漢城商業學校)선생님 이성구(李性求)씨댁을 시내명륜정(明倫町)막바지로 차젓습니다.

아버지 마흔둘 어머니 마흔다섯 이두분사이에 칠남매가 낫는데……

따님 다섯 아드님 둘

본래 시골어른들이어요 그다지 여유를 가질수업는 봉급자의 살님이라 대문안에 척드러서니 웅당은 눈에뜨위야할집 이사태가 난듯십게 사방에서 아파세간치레보담 단발머리짜리가 쏘다저 나옵니다.

×....×

「이거 우리집은 그저 남의 웃지당 남의지요」

아들부자 딸부자 안사방일소대를 차저서

체소한 이성구선생 선생그보담 첨신 몸집이크신 그부인, 두분은 아무리보아야 자루진 구석이란 하나도 업고 최다그만혼 자손들게 몰리고 번거집만 남은것갓습니다.

「우린 맨마지가 딸인데 재작년에 진명학교를 마쳣고 지금들어안저잇고 둘째가 아들인데 금년약학전문(藥學專門)에입학해서 공부하고 그담엔 배려 딸을넷이나 낫단말슴이에요」

이성구씨 말슴으로는 딸님여나 아드님이나 꼭갓다하지만 부인께서 내리딸부자를 만들때는 어지간아 흐이나신모양입니다.

「나는 가정에서는 ... 배 엣재부터는 거가마켜 죽게드럿니 그러다가 여 젓먹여까 생들여니까 우리보담도 애들이 더조와하오」

×....×

「열살채더면 그다지만혼게아니야 어떤애기들은 유난이건강하고 튼튼도실해서 무척만 흐겟처럼넘엇습니다.

「우린 아직도 더나쿠십흔욕심이엇서요 나흘수록 귀하기만하니 세상에 무자한사람은 어찌사는지 잡불상해요」

맨마따님은 흔흔하고 웅천한 아가씨인데 행주치마에 두팔을걷고 부억에서 선일을회회들니해내는데 여간탐스러운게아닙니다.

큰아드님 재주잇서뵈는 도런님에 무관방 공부항에서공부에 열중하고 그담엔 모도 철부지 엉석바지 안방일소대 가야다법석입니다.

×....×

「한달에 병원엘 몃번씩 가느냐구요? 우린소아과 병원문어 어떠케생것는지 구경도못해지요」

두분은 자손기르는데 자신 여섯습니다.

「우린본래 석모하나두지안코 전부배손으로 떼어고생하고 그담엔 흥찬먹고서 얼울해지요 이저울에 사람이 보면 짝짝발달지요」

「엄마 나머리까거죠」 일곱살짜리가 어머니 엽구리를 쥐어뜻습니다.

「우린 애들이 한번도 이발소엘안갑니다. 제맘형이 한시간이면 넷을 죽까저버리는데 그걸그래 이발소에가서 한아이 이삼십전씩 버려요?」

×—×

「그리고 홍역이나 압세기가튼것도 말씀해요. 그저한사나흘식 알라가 한이통되면 제호자쪽뚝 털고일어나요.」

「사실 나는 집에애들이 홍역하는줄도 별로모르고 지냇지요. 그런걸보면 자식만흔집엔 역시 하느님이 도아주신다고생각합니다.」

한해가 홍역가튼것을 치르자해도 부모의간장이 다녹아나는데 이댁에선 홍역도 남고빨랑못한답니다.

「어쨋든 우린 그저 막우기르지요. 방울고 의할새가잇서야죠. 그래도 부상은 잘들자라니 힘드는줄을 몰라요.」

그래도 현재 생활비 보담도 교육비(敎育費)가 더만히든다니 두분어버이는 조기지생선 때 조기꼬리하나 변변히 어더자시지못하고 제청에 면조견해나가가 한갑어드잇기 힘든다고합니다.

구별이 업시 어디고 나타나서 자신을 변명 ... 사로 그를 지시하는데는 다음 파가른 동기가 또한가지 잇섯스니 그것은 두말두 할것업시 유불란에게 대한 차여오든 적개심이 열좋의 것삼을수업는 승리감을 가지고 임경부의 협력을 지극히 유쾌하게 돌앗기때문이다.

스스일보를 두번세번 되푸리하야 읽고난 임경부는 극도로 흥분된 얼굴을 번쩍 들고 탁상에 노힌 전화기를 힘잇게 잡엇다.

편집동 오변호사의 사무소로 거는것이다.

「—오상억씨입니까? 임세훈이올시다. 지금 좀 꼿 뵈이려가려는데……혹시 바뿌시지 안호시거던 이리로 좀 와주시 ……뭐 손님? ……공작부인—주은몽씨가 오섯다고요? ……아 그럼 제가 그리로 가겟습니다. 자서한 이야기는 만나서—」

임경부는 스스일보를 구겨쥐고 창황한 발거름으로 ××서를 나섯다.

오후 아홉시—

거리에는 지튼 밤안개가 흐르듯이 나리고 오색의 「네온라이트」가마 도(魔都)의「님프」처럼 오고가는 사람에게 윙크를 하다 어디하야 흥분된 임경부를 태운 서용자동차가 일로 밤안개를 둘코 편집동을 향하야 질풍처럼 닷고잇슬 그지음—아니 그보다 얼마 전부터 오상억과 주은몽이 마주안저잇는 편집동 오변호사의 응접실 창밧게 이상한 사나이의 그림자가 하나 유령처럼 쑥 나타낫다.

봄에는하이킹! 스마이루가지고……

空氣가不潔하고 몬지가甚한 都會地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에게 郊外行樂과探勝은 적지안흔 魅力이며 憧憬일것입니다

그러나 恒常不適當한 照明아래서 細密한 일을 하는 都會人의눈에는 淸澄한郊外의

強烈한紫外光線에

對한抵抗力이 弱하므로 刺戟받 가실때는 반드시紫外線禍에對하야눈을保護하는準備가必要합니다。어떤意味에서는 기쉬우며 또한봄철에는 여러가지病原菌의跳梁이 旺盛케되매이므로 結膜에 充血을 여르켜서 쯤벅쯤벅쑤시고 부시며 섬히앗절앗절해지고 눈곱이 몹시끼이는 等의症勢를낫하내는

結膜炎

에 걸리게되여 모처름愉快한 「하이킹」이 悲慘한結果를 招來하고말게됩니다。그러므로 「하이킹」

新眼藥

「스마이루」가 널니賞用되고있읍니다。「스마이루」는 그獨特無比의藥作用으로 眼內를消毒하고 收斂할뿐만아니라 紫外線禍로부터눈을保護하며 爽快하고 視力을強化케합니다。

自動點眼裝置容器入
定價 二十五錢・四十五錢

信用잇는藥房

에서는 貴重한단골손님에게 眼科藥中의最優秀品인「스마이루」를勸합니다。全鮮信用잇는藥房・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합니다

適應症勢
結膜炎
眼充血
도라호ー므
角膜炎
角膜實質炎
眼精疲勞
潰瘍性眼瞼炎
其他眼疾一切

總代理店 東京・大阪
株式會社 玉置商店

講座 鑑賞法 — 詩文學科 (2)

言語

詩評家 崔載瑞

詩의 內部로 들어가면 곳 鑑賞이 始作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鑑賞은 解釋이 아니다 다만 [illegible]

따라만가면 그만이다 [illegible] 題目을 對할 때와 매 한가지로 서둘러 日常的習慣을 가지고 말에 [illegible]味를 解決하는 데 부치지 말란는 말이다 그것이 散文이 아니고 詩라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日常的意味를 떠나서 새로운 意味를 含蓄시키려는 詩人의 努力이 加入되어 잇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기 「言語의 流通性과 眞實性」 가운데서 言語를 貨幣에다 比하야 다음과 가티 말한일이 잇다.

「[illegible] 言語의 因襲的 意味가 잇기 때문이다. 言語의 因襲的意味란 이 社會안에서 約束되고 [illegible] 意味다 우리는 이 [illegible] 日常用務를 處辨한다 그리고 우리는 平和로웁다.

그러나 言語의 因襲化가 [illegible] 우리의 [illegible] 眞實性이 업는 거와 一般이다.」

「애초에 말은 [illegible] 示하엿다. 그러나 社會生活 [illegible]

[illegible]

朝鮮語의過去와未來 (上)

金亨奎

무릇 學問에 잇서서 現在의 狀態를 鮮明히 함에나 또는 將來에 올 發展의 模樣을 推測하기에나 그것이 밟아 온 過去의 變遷을 밝히는

(歷)

史的研究가 要求되어 잇지만 더욱 言語研究에 잇서서는 그것이 基本問題가 아닐가 生覺된다 그리고 우리 말과 가티 混沌한 가운데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現狀에 잇서서 우리들은 무엇보다 過去의 歷史를 밝히는 것이 急先務가 아닐까. 또 近來 朝鮮語研究에 心身을 바치는 學者들도 이 史的探索을 等閑히 하야 그 貴重한 研究結晶도 大槪가 밋만 나려다 본 近視眼的 觀察에 빠지는 일이 만라. 至今 우리들은 그와 가티 時間의 흐름을 逆行하야 옛날을 차즐 餘裕를 만히 가지지 못하엿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歷史的 觀點우에 서서 現在를 보고 未來를 判斷함이 正確한 方法이라는 것을 이저서는 아니 될줄 안다.

여기 歷史的 考察이라고 하엿지만 그 部面은 너무나 넓다. [illegible] 羅文學遺產의 하나인 鄕歌의 正確한 解釋조차 못되는 現狀이라 더 말할 것도 업지만 나는 여기서 [illegible]

(新)

朝鮮語의 根源을 살피고 또 그것이 時代時代의 政治的勢力 또는 文化的勢力에 어떠한 影響을 바드며 오늘의 朝鮮語를 形成하엿는가를 外觀이나마 그리어 볼가 한다.

古代半島안에 居住하던 種族은 濊、沃沮、高句麗等 北方民族과 南方韓民族의 두 系統으로 나눌수잇다 箕子說의 眞僞는 異論하고 其中에 『旣至朝鮮、言語不通、譯而知之…』라 하엿스니 中國語와는 다른 言語를 가지고 잇섯음을 알수 잇다 그러면 이들 言語上의 相互異同을 考察하야보면 濊에 關하야는 魏志에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衣服有異』 後漢書에도 『濊自謂與句麗同種、言語法俗大抵相類』 沃沮에 對하야도 魏志에 『其言語與句麗大同、時時小異』 後漢書에도 大槪가 同一하엿스니 以上記錄에 依하면 北方에 살든 高句麗、濊、沃沮等의 言語는 한 語族이엿슴을 알것이다 다음에 南方

(韓)

族을 보면 오래동안 弁韓、馬韓、辰韓等으로 나누어 統一을 못하엿스나 魏志에 『弁韓與辰韓雜居、亦有城郭、衣服居處與辰韓同、言語法俗相似』라고 하엿스니 弁韓、辰韓의 同族을 알것이고 더욱 辰韓에 關해서는 그 辰字音이 秦과 가튼 일로 秦에서 流入한 種族이라고 記錄된 文獻도 잇스나 우리들은 거기에 首肯하기 보다는 도리어 三韓이 完全이 同一한 種族이엇다고 確信하야 마지 안는다.

卽 古代朝鮮에는 北方系의 高句麗族의 言語와 南方韓族의 言語의 두 語族이 잇서서 互相變遷하야 오늘의 우리말을 이루엇다고 生覺된다 그러면 現在의 우리말은 高句麗語와 韓語가 서로 半分의 勢力으로 形成되엇는가 하면 [illegible] 北方高句麗語는 [illegible] 部分的影響 [illegible] 그것을 說明할 原因으로 나는 다음 세가지를 들고저 한다.

一、첫재로 半島의 先住民族은 韓族이엇다는 것이다. 朱蒙이 滿洲一部에서 일어나

(高)

句麗一族을 거나리고 鴨綠江을 너머 至今 京城以南地方까지 그 勢力이 뻐치던 大高句麗王國을 建設하엿지만 그들 支配階級은 [illegible]

[illegible]

八道俗談 랩소디 ②

方鍾鉉

(二) 가난구제는 나라도 어렵다

『註解』 貧寒한 사람을 救濟하는 國力으로도 오히려 어렵다고 하며 一個人의 힘으로는 困難함을 이르미라 耳談續纂에 『貧家之賑天下莫支』 (言難給施之 力不可繼)

(三) 가난한집 선주굶듯

『註解』 貧寒한 집에 모셔진 神主의 굶음을 이르미다

(四) 가난한집 제사날 도라오듯

『註解』 貧寒한 家勢에 現在사라잇는 사람의 입도 糊口키에 急한 形便이라 그 祭需에 이르러서야 어찌 困難하지 안흐리요 그러나 先祖에 對한 誠意로나 이 世上에 사라가는 體面으로보아 祭祀日을 거저 지내보낼수는 업는터이라 그러므로 [illegible] 怨이 못할일이 귀치안케 곳 잘 도라오믈 이르미다

(五) 가는손님은 뒤꼭지가 예쁘다

『註解』 未詳

學藝안내

日本皮膚學會例會

日本皮膚學會京城地方會에서는 第二十二回例會로 다음과가튼 講演會를 開催한다고한다

日時 五月十四日(日曜日)午後二時

場所 城大醫學部附屬醫院內臨狀A講義室

演題

一、듀ー링氏疱疹樣皮膚炎의一例 荒木正夫
二、『살발산』黑皮症의一例 荒木正夫
三、環狀肉芽腫結石의一例 李相堯
四、興味잇는『괴에로그란』氏病 石渡忠太郎
五、興味잇는 潰瘍性黴毒의一例 李[illegible]
六、中毒性紫斑病의『비타민』C 療法에對하야 [illegible]
七、帶狀疱疹病毒의 人體接種試驗 植木實明
八、黴原菌의 藥理學的知見補遺(第三報) 井上萬壽造
九、皮膚代謝機能의 全身的調節作用과 余等의 皮膚內『에조괴리키신』 金聰允
一〇、最近의 [illegible] 片岡八束 北村精一

詩와生活

李秉珏

[illegible]

BOUQUET OF LIFE

NOT RIPE

"These eggs are very small"

Camplained the housewife to her grocer.

"Straight from the farm this morning, madam" declared the grocer.

"That's the trouble with these farmers," she persisted "They've so anxious to get their eggs sold that they take them off the nest too soon"

미숙(未熟)

"이계란은 퍽적군그래"하고아씨가 가개쟁이한테 두덜거렷지요。"아침에 농장에서 금방온 건댑쇼"가개쟁이가 선선히대답햇지요

"그게 촌사람들의 탈이란말이야。계란을 얼른팔랴으로 애들을써서 둥어리에서 너무빨리꺼내니까 그런게야"하고고집이십니다。

新刊紹介

▲經濟月報 四月號 發行所京城府長谷川町 京城府商工會議所 定價五十錢

▲望鄕 (詩集) 金尙鎔著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 韓靑삘딩內 振替京城二五〇七〇番 定價一圓四十錢 送料九錢

▲讀書時代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朝鮮讀書時代社出版部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朝鮮辯護士協會報 第一號 發行所 京城地方法院辯護士控室內 朝鮮辯護士協會 振替京城二〇〇七〇番 年價三十錢

▲아이생활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朝鮮野談全集 第二卷(內容) 車相瓚著 『活人樹』 白髮紅莊 鴨綠江上의三美人 陪美人 桃花娘 男武裝의女勇士 相思蛇 高麗의屬品 安斗大平의失戀 外十五篇 金浿溪著 『鬼神울린서방님』 處女의寃魂 斷腸의悲戀 冊水魚 山寺의約束外三篇 以上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五十錢 送料二十五錢

▲信仰世界 五月號 發行所 平壤府景昌里四五ノ二 信仰世界社 振替京城五三一番 定價十錢

▲文教의朝鮮 五月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學務局內 朝鮮敎育會 振替京城二〇三〇番 定價三十錢

詩壇金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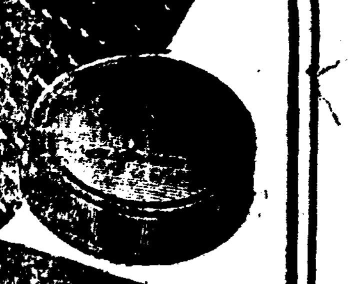
滄東學人

李陶隱의詩調 (上)

一日은 牧隱이 李崇仁의 지은 嗚呼島詩를 보고 極口稱讚하여 가로되 이詩는 唐詩가운데 厠入한다 하드래도 조곰도 遜色이 업겟다 하엿다 그詩에 하엿스되

嗚呼島在東溟中、滄波渺然一點碧。夫何使我雙涕零、祇爲哀此田橫客。田橫氣[illegible]橫素秋、壯士歸心實五百。咸陽隆準眞天人、手注天潢洗秦虐。橫何爲哉不歸來、寃血自汚蓮花鍔。客雖聞之將奈何、飛鳥依依無處托。寧從地下共追隨、軀命如絲安足惜。同將一刎寄孤嶼、山哀浦思日色薄。嗚呼千秋與萬古、此心苑結誰能識。不爲轟轟有所洩、定作長虹射天赤。君不見古今多少輕薄兒、朝爲同胞暮仇敵。

陶隱(李崇仁의號)의 이詩는 意思深遠하고 氣格이 蒼勁하야 盛唐의 風格이 잇스니 果然 傑作이다 鄭道傳이 [illegible] 數日뒤에 自己도 또한 嗚呼島詩一篇을 지어 牧隱에게 보이되 이詩를 偶然히 古人文集中에서 어덧노라 하엿다 牧隱이 보고 가로되 이詩도 佳作이다 그러나 君輩도 넉넉히 할수잇는 作이다 [illegible] 陶隱의 詩는 참으로 쉽게 엇지못할 作品이라 하엿다 그後에 道傳이 [illegible]



먹으면——낫는

「아픈것모르는」

回効散 かいこうさん 회효산

005030

歯痛に 頭痛に 神經痛에

치통에 두통에

憂鬱이 뿌리채날러간다! 나는듯이 팔린다!

다섯가지자랑

卽妙第一 당장에 痛快하게効力이잇서서 무엇보다도 조타

安心第一 胃腸에 絕對無害하고 兒童에게도 安心된다

藥質第一 連服하면도리혀 神經을養하야튼튼하게한다

廉價第一 定價도至極히 싸고 一劑三効는日本一

賣行第一 어느곳藥店에서나 第一位로 盛히 팔린다

이러므로 効力이잇다!

回効散이 齒痛과頭痛뿐아니라 各種의神經痛에도大端히効力이잇는것은 東京帝國大學附屬病院에서神經痛의 特効藥으로 推奬하는貴重藥이 精妙하게配合되어잇스므로 疼痛을 除去疲勞를풀고神經을 튼튼하게하는 優秀한作用을 가지고잇습니다。

먹어보고 稱讚하지안는 분은업습니다。꼭한번實物을試驗해주십소。全國의藥店에잇습니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五圓

本舖 合資會社 森田製藥所 振替東京八九四八番

(本店) 東京市京橋區新富町

(支店) 大阪市東區小橋元町

都會地隣接地가 絶對有利條件

처음엔小規模로시작

養鷄 高陽郡水色 金炯著氏 ①

畜産이 農村에必要한것은 어제다서도 언제 말할必要만 戰時下 銃後 農家의 産業으로서의 畜産이 重要性을 띄게된것은 農村事情이 [illegible]에 따라서 從來에 等閑視되어잇던데 反하야 重要畜産資源과 農村經濟의 充實兩方面으로 一層如實히 認識케되엇다

그리하야 總督府에서는 지난여름에 農林局內의 畜産係를 畜産課로 昇格시키고 獎勵機構의 根本的刷新을 圖謀키爲하야 時局對策調査會에는 特히 畜産의 擴張獎勵에 關한 諮問을 附하야 旣定畜産計畫의 檢討 新規畜産計畫의 樹立其他 各種畜産獎勵方針에 關하야 適切한 具體的答申을 求하엿다 도 內地, 滿洲, 支那와의 關係에 잇서서도 朝鮮은 畜産上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스므로 畜牛, 養豚, 養鷄等 [illegible]

이가티 朝鮮內의 畜産은 豐富한 剩餘勞力과 飼料資源에 恩澤을 입어 劃期的進展이 期待되고 잇는데 이의 副業으로서의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야 처음에는 副業으로 着手하엿던것이 오래지안허서는 本業에 依한 收入보다도 오히려 만흔 收入을 보이고잇는 되는 모든 施設을 講究하야 全幅의 努力을 傾到하야써 目的達成에 邁進하지안흐면 아니되게되엇다

나의副業成功記

K記者

成功者가 적지안니하다 그러면 副業의 [illegible] 하는 本人의 知識 力量은 勿論이어니와 [illegible] 都會地附近에잇서서는 그有利한 販路와 經營方法等으로 決定되는것이다 지금記者가 차저간곳도 亦是 京城이라는 大都會地를 相對로 主要한 食料品을 供給하고잇는 [illegible]

水色은 京城에서 北쪽으로 約二十里가량 떠러저잇는 都市에 隣接되다시피된 村落으로서 三年前에 京城電氣會社 變電所가 이곳에 設置되어 電燈이 엇거 살기 얻게 잇고 洞里東北쪽에 [illegible]

그러데 鷄舍나 모든道具가 퍽오래되어 보이므로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엿느냐고하니 벌써 七八年가량되엇다고한다

「나는 아직까지 큰失敗를 본일은 업습니다마는 大概 [illegible]」

生絲十年來高價로

春繭大增産豫想

五十四掛程度로推測

生絲市況은 米國과 內地의 物品不足과 消費의增加로 價格이 千二百圓臺를 보히고 十年來의 最高價를 보히고 現物市況도 따러서 자못活況을 뵈하고잇다 內地農村은 勞力不足으로 減産되리라고 豫想되며 繭價의前途는 强氣說이 有力하다 朝鮮의 春蠶은 掃立期에 드러가는데 이狀態로나가면 近年에稀有한高價를 보히고 五十四掛는 堅持하리라고 觀測되는데 各地掃立은 桑葉이 잇는限 最大限度로할것이므로 朝鮮에서도 未曾有의 産繭을 보힐것으로 期待된다 朝鮮의最高生産記錄은 昭和九年 七十五萬石이엇는데 本年에는 八十一萬石以上으로 豫想되는一面 製絲會社側에서도 購繭에 積極的態度를 取하리라고 觀測된다

麻袋輸入

朝鮮에도配分

朝鮮水産製品의 輸出에 잇서 必要不可缺의 麻袋의 輸入과 第三國輸出에 關하야는 四月分부터는 日本黃麻工業會에 對하야 配定한 것中에서 朝鮮에 割讓하기로되여서 日本黃麻工業組合은 그所屬組合員인 東洋麻絲, 小泉製麻, 大阪製麻, 日本紡績의 四社에 朝鮮向原料麻를 配給하고 이 四社는이것을 製織하야 直接朝鮮의 需要에 應하기로되엇는데 四月分配定은 左와如하다

同口絲	四一七俵
同口絲	一一俵
硬化油	九七俵
同口絲	四俵
輸出絹布用에쓰이안코로스二三俵	一俵
同口絲	
合計	五六三俵

全南叺過剩

露積處分이困難

全南의 가마니의 出廻狀況은 依然衰退하지안코 市日에는 各地가 모두 昨年보다 出廻하는데 榮山浦共販所에 五, 六萬枚나 出廻하기때문에 收容難에 빠저잇다 四月中의 道內出廻總數는 實로 百三, 四十萬枚에 오를모양이다 이때문에 全南叺會社의 倉庫는 모두 滿庫가되어서 露積을 하지안을수업는 狀態에잇다 現在全南産叺의 在庫數는 四百五十萬枚로 四月末現在의 道內生産은 七百萬枚에 達하고 配定數量인 六百二十萬枚를 突破한 모양이다 會社와 當局에서는 霖雨期를 압두고 露積한 가마니의 處理方策에 苦悶中이라한다

農山村의 一大福音

生松脂의 採取 (下)

時期·方法·販賣案內

五, 鋸齒式의 切付 이것은 松脂採取上 가장 重要한 作業인바 흠을 使用하는것보다 끌을使用함이 結果로보아서 조흔데 흠을使用할 경우에 比하야 作業은 容易하지만 흠집을 내 자죽이 거칠하기 때문에 松脂가 停滯되어 말너붓는 일이 만코 끌을 使用하면 切面이 平滑하야 이러한 弊가적다 끌은 農家에서 鐵線가튼것으로 簡單히 맨들어서 使用하야도 조흐니 뭇돌에 잘갈어 銳利하기만 하면足하다 特히 注意할 點은

1, 切付의 位置는 松樹의 北으로부터 南으로 東으로부터 西로 나가며 切付한다 그러나 松樹가 傾斜진 경우에는 傾斜진 方面에 切付하고 [illegible]

2, U字形의 斜溝는 水平線에 對하야 四十五度의 傾斜로

3, 斜溝의 深度는 木質部에 約二分쯤들어가게하고 線은 直線으로

4, 大小를 이지 안으나 끌은 언제든지 恒常 銳利하게 하야 作業이 언제든지 順調롭게 할이 緊要하다

六, 受器의 設置 斜溝의 切付가 끗나면 左右斜溝의 合一點에 못을 박고 受器를 매단다 斜溝에는 열뎐무릿기나두러운 종이를 끼워서 生松脂가 흘너나오게하고 受器는 [illegible] 使用에 便利하다 [illegible]

七, 採取 樹幹에 切付가 끗난後 五六分乃至十餘分이 지내면 松脂가 흘으기 시작하는데 受器에 모힌 生松脂는 一晝夜만에 한번式 金屬製나 竹製의 주걱가튼것으로 글거내서 三滿分式을 그대로 放置하야두면 生松脂中에 含有하야잇는 테레빈油가 發散하지안토록 密封하야 더욱서늘한 貯藏庫나 地下室에 貯藏함이 可하다 荷造는 密封하기爲하야 木樽을대고 密封한 [illegible]으로荷造하면된다 以上과가튼 方法을 遵守하야 採取한 生松脂면 百斤에 二〇圓程度를 바들수잇는데 最近에 市場에 나타나는 生松脂는 大概가 松樹에 自然으로 생겨固化한 松脂를 모아다 販賣하기때문에 不純物이 만이섞겨서 品質이 劣惡하기때문에 百斤에 十三圓가량바게 안되니 作業과 採取에 注意하야 品質과 價格의 向上을 圖謀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原材料求得至難

轉失業의最大原因

京城商工會議所商工相談所에서는 轉失業의 原因을 調査中이엇는데 이에依하면 原材料商品不足에 依한것이 首位이오 次位는 店員職工의 不足, 資金融通의 困難의 順序로 되어서 原材料入手難이 深刻함을 如實히 表面化하고잇다

膠代用品好績

專賣局에서使用

專賣局에서는 時局에 對應하야 消費節約의 徹底를 期하라고 代用品의 研究에 銳意努力하여왓는데 最近高價品에 屬하는 膠의 代用品을 研究完成하기에 이르러서 이것을 京城地方專賣局工場에서 使用한 結果에 依하면 成績이 대단히 良好하야 一年間에 生産費用 二千五百圓程度의 低減이 確認되엇슴으로 專賣本局에서는 이膠代用品을 各地方局工場에 使用케하면 대단히 生産費節約이 되고 一面으로는 輸入을 防遏하야 自給自足의 趣旨를 貫徹할수잇다는데 이膠代用品은 『데키스도린』에 布海苔를 配合한것이라한다

製紙原料로

杞柳皮를試驗

【忠南支社發】忠南道産業課에서는 製紙原料로 杞柳皮를 使用하기로 論山製紙組合에서 試驗中이라고 하는데 杞柳皮가 製紙原料로 試驗에 成功하면 今後 同原料는 無盡藏하다고한다

朝鮮油脂爆藥

日産廿噸計畫

旣報와가티 日本油脂系 朝鮮油脂의 多角形的 經營化로서의 爆藥工業의 兼營은 第一期計畫으로서는 日産十噸이라고 傳하고 將來는 三十噸까지 向上시길計劃이엇스나 總督府의 認可는 一般의豫想에 反하야 日産二十噸을 目標로 하는것이 判明되어 同業者를 驚然케하고잇다 同社의 許可能力 二十噸은 朝窒火藥의 現存能力과 同一하고 朝窒火藥의 六十噸計畫이 實現하면 朝鮮全體는 內地의 그것을 凌駕하게되고 販賣系路를 支那에 한다고는하지만 第一期計畫中은 當然 朝窒火藥과 日火系인 朝鮮火藥의 地盤을 奪取할것으로 觀測되어 一大商戰이 展開되리라고 注目된다 또同社工場은 販路를 大陸에 求하고 잇는關係上 最初는 鎭南浦 그다음은 不凍港인 海州로 轉轉變更되다가 敷地의 買收關係로 結局 仁川에 工場을 設置하기로 決定되엇다한다

商工聯合會

新年度計畫

京城商工組合聯合會에서는 來二十五日午後三時부터 京城公會堂에서 第三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國歌合唱, 宮城遙拜, 默禱, 皇國臣民의 誓詞齊誦, 會長의 人事가잇슨後 議事에 들어가

一, 昭和十三年度事業報告의件
一, 同 決算報告의件
一, 同 會務報告의件
一, 昭和十四年度事業計畫과 歲出入豫算의件

事業計畫은 左와如하다

一, 年末大賣出
一, 商品見本市
一, 巡回見本市
一, 從業員修養講演會
一, 夏期商工從業員修養道場
一, 組合强化助成
一, 經濟統制下의 內地商工界事情視察

또 右總會後 第十回京城商品見本市 記念表彰式을 擧行한다고한다

滿洲北支 產業視察指南

本社主催視察團코-스 ②

奉天

▲位置 奉天은 遼河의 支流渾河를 아페안은 沃野가운데잇다 新京에 三〇五粁, 大連에 三九七粁, 安東에는 二七六粁 地點에잇는 交通의 要衝으로 將來商工都市로서의 躍進이 約束되어잇는곳이다

▲氣候 滿洲氣候의 典型的인 三寒四溫의 氣象으로 昭和十三年의 最高는 八月五日의 三三五度二, 最低는 一月二十四日의 零下二六度一이엇다

▲人口

滿洲人	六六五, 八一五人
邦人	九一, 九九四
朝鮮人	一九, 四七七
外人	一, 一三五人
計	七七六, 四二一人

▲工業 奉天은 商業都市인 同時에 工業都市로서 工業地로 顯著하기는 日露戰爭後日本이 滿洲에 進出해서부터이며 大正五年南滿洲製糖會社의 創設은 奉天의 工業界에 新紀元을 지엇는바 그무렵이어 麻袋毛織株式會社 奉天製麻會社 其外의 紡織工場 釀造場 煙草工場 窯業工場 食料品工場等이 續出되고잇다 그러데 奉天은 工業地로서의 要素인 水, 氣候, 諸原料 勞賃, 燃料等에 잇서서 最適의 條件을 具備하고잇슬뿐아니라 交通의 要衝에잇스므로 滿洲의 만체스터-로서의 重大使命을 가게되엇다

撫順

▲位置 奉天을 距하기 東方三五粁 [illegible] 中腹에 南北四粁 面積六〇一六萬平方米의 [illegible] 市街地는 그一部에 存在하고잇는데 昭和十二年十二月行政機構의 改正과同時에 撫順市는 隣接地의 編入에依하야 市街地面積은 九一, 二三八, 〇五〇平方米이다

▲主要産業 石炭(十四年度採掘豫定 九九九萬噸)原油, 重油, 揮發油, 아르미나, 鐵, 發電(二八萬KW)硫安, 窯業, 豆粕等이 잇다

北京

北京은 『東洋의巴里』라고하는 사람들도잇스니 오래동안 大帝國의 國都로서 그面目을 지켜왓스니 만치 아직까지 舊都로서의 偉觀을 그대로 가지고 잇다 朱塗黃瓦를 [illegible]엇다 北京의 거리는 이미 市街全體가 一團의 名勝舊蹟이다 따러서 觀光個所도 非常히만흔데 한번 北京을 見學하려면 自動車로 三日은 걸려야한다고한다 그러나 하루동안 自動車로 北京의 輪廓만을 보고하라면 北海公園 萬壽山 宮城內廷을 除하고 天壇과 [illegible]를 見學하면조코 또事情만 許諾되면 一日三日을 드려 [illegible]

▲位置 河北省北部에잇서 北緯四十度에 該當하는데 天津으로부터 西北一三九粁 汽車로 三時間에 갈수 잇는곳에잇다

▲戶數 廿餘萬 人口約百萬餘

(계속)

物價

十三日

▲果實類: 梨(早生赤)三貫五, 同(今村秋)三貫五, 同(晩三吉)三貫五, 國光 大箱, 同(鎭南浦)四貫, 同 四貫, 印度林檎 四貫 [prices illegible]

▲家畜飼料: 粉末配合鷄卵用, 成鷄用, 初生雛用, 三種配合飼料 [prices illegible]

▲菜蔬: 메론, 金柑, 夏蜜柑, 苺, 臺灣西瓜, 바나나, 蓮根, 白菜, 土當歸, 甘藍, 新馬鈴薯, 玉葱, 牛蒡, 長大根 [prices illegible]

▲海産物: 乾明太, 乾大口, 鰈魚, 數子, 海苔, 乾石首魚, 白魚脯, 新鹽鯖, 北海道新鰊, 對馬島鯖, 가나기 [prices illegible]

▲農産加工品: 麥粉, 漆, 荏子油, 胡麻子油, 綿實油, 白絞油, 乾蓮根, 고사리, 干瓢, 醬 [prices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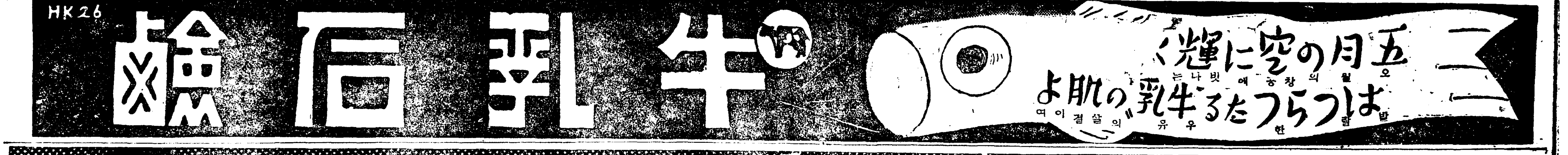
▲肥料: 石灰窒素, 硫安, 硫加燐安, 硫酸加里, 安東豆粕, 豐年大豆粕, 胡麻油粕, 加燐安, 地和化成肥料(現物) [prices illegible]

▲家畜類: 鷄卵, 生鷄, 生豚, 生兎, 生鴨, 鷄卵, 蜂蜜, 四季鳥, 豚毛, 同, 羽毛 [prices illegible]

▲製藥藥品(朝鮮製藥協會調査): 脫脂綿, 크레오소-트, 大豆石鹼, 硼酸, 結晶硫酸銅, 生石灰, 粉末, 乳鉢 [prices illegible]

▲漢藥 ◎唐材之部: 大黃, 甘草, 唐木香, 上桂皮, 鹿茸, 麝香, 朱砂 [prices illegible]

◎草材之部: 黃芪, 熟地黃, 當歸, 白芍藥, 茯苓, 山査肉, 枳實 (朝鮮製藥會社漢藥部調査) [prices illegible]



原料難의製絲業界 窮狀打開에汲汲!
大邱業者代表道에增配陳情

【慶北支社發】조선사업상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잇는 견직물업(絹織物業)은 근년원료부족으로 년사백 삼백만원의 감소를보고 잇는터이다 경북의계사업자는여 공상을 타개하고저 여러가지협의를 거듭하고잇던바 마침내원료견(原料繭)의 배급증가를 요구하기로결정하고 십일일오후세시경 대구산업조합(大邱産業組合)이사 이종원(李鍾元)씨외 당업자네명이도산업부장을 방문하고 현하의정상을 진술하야당국의 선처를요망하엿는바 도의처단이 주목되며 대략의경로를보면 다음과갓다

소화십이년 고치자유판매를 금지하야 경북도당국에서는 대구의 삼대제사공장에 배급하고 고치의비률대로 중소제사업자에게도배급하기로하야기게제사 「가마」한개에 년삼백관!!족답(足踏)식!!「가마」한개에 년이백관으로 정하엿스나 그후배급실적을보면 소화십이년 추수량이 사만삼천오백구십구관으로「가마」에 팔십관 소화십삼년 이만칠천이백구십칠관으로「가마」에 오십삼관의 평균배급을 겨우 밧게되엿다 여로 말미아마 대구부내 수십업자가 가지고잇는 오백이십여개의「가마」의태반은 휴업을 아니할수 업게되어 일천삼백여명의 종업원은사활문제에 직면하고잇서 부당국에서도 십여일고시브유이 도산업부장을 정식으로방문하고 각가지문헌의를한것이다

"咸南新企業者에 完全히課稅하라"
道地方課、郡守會에提案豫定

【咸南支社發】함남도 지방마에서는 오는군수회의에 신세원획득(新稅源獲得)에대한 주요한제안을 하기로되엇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함남은북하 공업지대로서 엄청난내지의중소기업가들의 투자가 극히 만흔데 지방세무관리들은 그 조사를 게을리하야 가장 정당한 과세를 하지못하고잇다 어여대하야 함남도에서는 신세원(新稅源)의 개척을위하야 어듸외래기업가들의 영업을 가장엄밀히 조사하는동시 종래과세하지안튼곳 또는 실제소득이하로 과세하던곳에 정당히하는동시 가장밀히 조사하야 신세원의 획득에 주력하라는것을 이번군수회의에 제안실행 하기로되엇다

어에서 쏘다진돈이 오만원이상의 거액에 달한다고하며 금년가을중회은 근래에 종체로보기드믄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잘될리라고 하야 당업자들은 큰기대를 가지고잇다 그리고 수요지는 경성(京城)을 비롯하야 전조선각지와멀리 만주 내지등으로 가는데따다 호평을 맛고잇다고한다

皇軍慰問使報告會
裡里小學講堂에서

【裡里】십일일오후네시 전북이리소학교강당에서는 이리황군위문사 노후식회로 충북지황군위문사(中北支皇軍慰問使節) 湛、高野方松)양씨의위문보고회가 잇섯는데 수백명의 청중으로대성황을이루엇다한다

咸興府議의 最初選擧違反

【咸南支社發】함흥에서 처음잇는선거위반 함흥서에서는 지난십일 부의원후보 김태곤(金台坤)씨외운동원 정봉길(金鳳吉)을 검거하여 취조하다가 유치(留置)를풀어 보냇는데 그는 운동원의계출을 하지안코 선거운동을 하엿다는것이 발각되엇다고한다 그리하야 인후보한 김태곤도그날선거를 사퇴하엿다고 하는데 함흥에잇서서는 처음잇는선거위반이라한다

端川郡漁港으로 汝海津을內定

【咸南支社發】단천항(端川)이공업항(工業港)으로되는동시에 일약일본의 제일주요한 항구로됨 이후 단천군의어항(漁港)은 어대로 결정되느냐? 이것은 함남도연안의주요문제로되어잇던바 이에대하야 도당국의의향을 들어보면 결국그어항은 인접한여해진(汝海津)을 선정할수밧게업는 결론에달하엿다고 한다 그리하야 토목과에서는 여해진에대하야 근일중으로어항으로서의 적부를조사하여가지고 계획을보도와가장 면밀한계획으로 시설하주에나아가리라한다

犯行四十餘回의 竊盜常習漢送局

【洪原】속담에 고비가길면 붓들리기 쉽다는 격으로 거금수년전부터 범교시민을 불안스럽게하며 소란계획의 가슴을 쓰리러거하던 절도상습이 엄마전에 당지 회신상회(利信商會)원어지를 헐고침입하야 물품천여원어치를 훔처갓는데 이를보를바는 범교경찰은 활동한결과 근본 제주도(濟州島)출생으로 범교에잇는 김홍언(金洪彦)(三六)을 범인으로 단정하고체포취조한결과 전기 사실을 자백해다하며 그밧게도 범행한건수가 전후 사십여회에 달한다하며 취조가 끗난 지난 십일일 순천지사국으로 일건서류와 함께 송국하엿다한다

北靑에도喜雨

【北靑】북청일대는 근일계속이나 비가 나리지안어 격정중지 고사상태에 빠저조물식과 함께 인심도 회기가 만만하다고한다

南船北馬

대구시내에는 최근 길거리에 사주(四柱)쟁이 무척 늘엇다 ▲이러하여 먹고살기 위하여는 할수업지마는 ▲미신을 조장하고 길가에서 정당하는것은 아무리생각해도 용인키어려운데 ▲이즘에는 그들도 인제(引客)들이 놉혀서 지내가는사람을 어지간하면 억지로라도 끄을어앉치고 점을치게되는판에 시골서오는 부녀자중에는 가지고잇든 여비까지 다빼앗겨버리는 웃지못할 넌센스까지잇서다 ▲좌우간 이러한들이 백주대로변에 공공연하게 진출치고잇는것은 문화도시에 적지안흔수치일것이라하여 일반의 눈살을찌프리게한다 (大邱)

李太祖古蹟保存
馳馬臺 讀書堂 擊毬亭修築等 全州李氏門人이蹶起

【咸南支社發】함흥근교에잇는 이태조의 고적을 보존하고저 함흥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궐기하야 여러가지로 활동을 하게되엇다

그중에서는 함흥부근교에잇는 치마대(馳馬臺)귀주사(歸州寺)안에잇는 독서당(讀書堂)과 함남에잇는 격구정(擊毬亭)등의 이태조의 고적이 오래동안 손을대지안코 그냥 허무러저가는대로 두엇스므로 이번 그고적을 모두 이씨종중에서 보존키로 하야 십일일 부내 이창건(李昌鍵)씨집에서 종회를열고결의하엿다

이리하야 제일착으로 개인에게팔린 치마대의바위대가 사십오원을 십일일 대표이창은(李昌殷)씨가 함경남도학무과에 바첫다 그리하야 금후치마대를 고적으로지정하여 수축할때에도 종중으로서 그비용을 담당할터이라고한다

둘째로 귀주사에잇는 독서당은 이태조께서 독서하시든곳이다

또 함남에잇는 격구정은 태조께서 공을치면서 훈련하시던곳으로 터만 남기고 그정자는 십여년전에허무러젓스므로 이번 그정자도 신축하야 보존키로되엇다

貿易南浦의盛事
二億圓突破祝宴盛大

【鎭南浦】진남포항무역액이억원돌파축하회는 예정과가티지난십이일오후세시부터 진남포공회당에서 열리엇다 평남석전(石田)지사를 비롯하여 관계자일백오십여명이참석하여 진남포상공회의소하조회두와 신의주세관장이 진남포항무역의진에 대한연설과 석전지사의 축사와 남포평양무역공회의소부두(副頭)회두등제씨의 축사가잇슨후 진남포항무역액이억원돌파에 대하여 요로관계당국에 감사의전보를 발송키로 하엿다 진남포항을보지로 물가로 무역경과 아울러 지리적관게 기타로 보아 금후 무역액이일층격증하는동시 머지안흔장래에 삼억원의 무역액도 무난히 돌파할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무역이억원돌파축하회장)

元山二大海面埋築 近日請負着工
元山府土木課長活動

【元山】원산부금년도 신규양대 토목사업인 해안통일대정복 매립창(米倉)부지와 해안통정복어조(漁組)부지 해면매립공사는그동안 창과(倉科)토목과장이 동공사를 촉진코저 계획안을가저고 상도하여 도지사의부신(副申)을 어더가지고 다시 경성으로 직행하야 총독부당국과 절충한결과 계획안에대하야 전면적으로 내락을 어덧다고 하다 그리되엇스므로 오는 신학 팔일중에는 정식으로 인가가 엇슬터이라는바 인가즉시 부내와 지방의 적임자에게 입찰청부케하야 즉시 착공할터이라한다

鐵原公立高女 開校式盛大擧行

【鐵原】교육시설이부족한철원에는드디여 단생을보게된철원고녀는 그간생도모집도맛다 지난십이일 전전원가연학교 자리에서 역사적인 개교식을 열엇다는데 김(金)강원도지사를비롯하야 목원(木原)철원군수이하 관계관과 입방유지 삼백여명이 참석하야 오전열한시부터 식을 열엇는데 일동은 일제히 궁성을요배한다음 국가합창과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학교개설경과보고가잇섯고 김(金)강원도지사의 식사를비롯하야 관계각관의 축사가 끗난다음 덕전(德田)교장의 인사를 끗으로 창가(우미유까바)를 합창하고 일동은 엄숙한긴장속에 식을마치엇다고한다

城津名産숭어
近來稀有의豊獲

【城津】벚꽃시절을차자 회유하는 숭어(鯔)가 명산지 성진에서 무척잡히고 잇서서 말리빠진어항부두에 기름기가 흐르고잇다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한것은 십여일전부터인데 하로평균 어만오천마리가량이 연일 부두에 상륙되어 어업조합을 거처서 매매되는바 십여일동안에송

記憶을새롭게하는 張鼓峰戰捷記念碑
會寧十九聯隊營庭서除幕式

【會寧】국경수비의 중임을마튼 회령공병제십구연대(工兵第十九聯隊)는 지난 장고봉사건에잇서서 소련전차(戰車)섬멸전에 빗나는 무훈을 사이에떨치고 국경부대의 사기를 충분히발휘하엿는바 금번이영예를 영구히기렴하고저 그연대영정에 전승기렴비를 세우고 그제막식을 연대창립기렴일인 십일오전 여덟시부터 파전(波田)십구사단장소림(小林)연대장이하 그부대장병 군편민 각학교아동생도등 무려수천명의 참석하에 성대히거행하엿다

이날 경오두시에 국경을더픈 울창한전기도 불구하고 정각전부터 참석자일동은 숙숙모허잔엄하게 신편의 식순으로 식을 진행하는가운데 소림연대장이사건령시를올린후 축의창식사낭독후 하얀막이 떠러지자 장고봉사건전승기렴(張鼓峰事件戰捷記念)이라고각자한 기렴비가 장엄하게나타나 참렬자일동에게 새로운 감격을주고 성대하고도엄숙한가운데 식을마치엇다

【會寧】회령 공병제십구연대(工兵第十九聯隊)는 설엽 그연대제이십사회 창립기렴일을 마지하야 기렴축하식을 대대서 군편다수참석리에 성대히 거행하엿다

정각여덟시반 연대 호국신사아페는 파전(波田)사단장 좌등(佐藤)사령관이하 군편민 각학교생도 무려수천명이 참석하야 그대 이십사년동안 전몰한장병의 위령제(慰靈祭)를지내고 계속하야 봉령식을 시행하엿다 소림연대장의 식사낭독이 잇슨후 우뢰갓흔 나팔소리에 보조를마추어 총검 구두소리도 용감하게 분열당당히 분열행진을 거행한후 강당에서 대주하연을 열고 운동회 연예 무도 검도등 여흥으로 다섯시반 의의어잇는기렴식을 마치엇다 (사진은 기렴비)

染病全洞을威脅
桂珍里에서五名隔離

【錦山】전북금산군하옥리(下玉里)와 게진리(桂珍里)에 장질부사가 발생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후에어 어무서운병마은 결국 게진리전동에 만연되어 보통으로동리까지대 박만수(朴萬秀)외세명의 진성환자와 수명의용의환자를 내게되엇는데 동리사람들은 공포에싸여 지낸다는바 당지경찰당국에서는 즉시로 하옥리김황룡(金黃龍)과 게진리 박만수(朴萬秀)외세명의 진성환자를 즉시 격리병사에 격리시키는동시 교통차단을 시켯다는데 압서 주문해둔예방주사약이 도착되면 즉시로 발병된부락은 물론 언근부락까지 철처한 예방주사를 시행하야 만전을 기하고저 고대중이라한다

忠北金組理事會議

【忠北支社發】충북도 어재과와 연합회 지부에서는 지난십이일부터 이일간의일정으로 도내금융조합이사회의를 열엇는바 산본(山本)내무부장 도부(渡部)이재과장임석과 강구(江口)지부장 등제로 회의를열엇는바 토의사항은 대략다음과갓다 一、貯蓄獎勵 一、殖産債의增設 一、共販事業의具體化 一、組合員의增募

公州農校開校記念 씨름大會開催

【公州】충남공립공주농업학교에서는 오는이십칠일 정오부터 당교정에서 개교십주년기념식을 거행한후 동일오후부터 동교생도들과 동군내 초등학교학동선수의봉납(奉納)씨름대회를 열엇다고한다

忠北郡守會議
廿五日부터三日間

【忠北支社發】충북도에서는 정례에 의한 도내군수회의를 오는이십오일부터 이십칠일까지 삼일간의 일정으로 도제일회의실에서 열기로되엇다하며 이십칠일에는 무도대회가 잇고 이십구일부터 삼일간은 경찰서장회의가 계속열리기로되엇다한다

豪華로울土木界
咸南道明年度計畫樹立着手

【咸南支社發】함남도에서는 명년도의 토목사업계획을 오월안으로 전부짜게되엇는데 약진함남의 현실에맛도록 하기위하여 적극적으로 현안중에잇는 공사를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우는중에잇다 아직 성안은 엇지못하엿스나 대개 주요공사를 보면 어항(漁港)수축안으로 단천공업항대신에 여해진(汝海津)을 어항으로 지정하고 시공하도록할 모양이며 이외에 신창(新昌)삼호(三湖) 전진(前津)의 세항구를도비로써 수축하기로 되엇다 그다음국비(國費)로써원산(元山)흥남의 두상항(商港)을 수축키로될모양이다

그다음은 지원민부담으로 신포(新浦) 영흥(永興)의 두곳상수도(上水道)신설 함흥 원산 흥남의세곳수도를 확장하기로 될것이다

이것을전부 예산을 짜뒤에는 곳총독부에 보조신청을하여 전부용인되도록 절충을 시작할터이라고하는데 명년도의 함남도의토목공사가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근년에보기드문 호화판을이루게될것이다

邑面書記希望者 講習制度創設

【全北支社發】전북도지방과에서는 장내 읍면직원이되고저 하는자를위하여 읍면직원 양성강습소가튼것을 시설하야 근근개소하기로되엇다는바 양성소는전주에 설치하고 인원은 약육십명을수용할것이며 강습기간은대체로 수개월간이 되리라고한다 어시험은 어번이 처음이라 효과는만히기대된다

鐵配統組合組織
寧邊商工會의仲裁로

【寧邊】금번 판게당국으로부터 못、함석、철사등의 선재제품의 배급통제에따라 영변읍에도 그 판매지정상인한명을 두기로되엇는데 현재당국에는 전기선재품 판매업자는 배명이나잇스나 한명만을 저정함은 배급원활을기키어려울뿐더러 너무나 독점적 어의을 주는것이라하여 당업자들은 그실정을들어 당지상공회에 누차진정하여왓스므로 동회에서는 그동안여러가지로 판게당국과절충하는한편 도한신중한 고려를하여오든바 수일전에는 읍내당업자전부를 소집하고 배급통제조합을 조직키로 협정되엇다 즉지정상인은 당읍통부동 김인길(金寅吉)명의로 허가를엇기로하고 기타출자방법、어의배당등에대하여 상공회장의중재로 원만히협정되엇다고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235】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자모산성上 (七)

남을오는사람이 알는체하는데 황천왕동이도 속이 좀 떨떨하얏지만 그사람은 성물리 말한마듸 부처다가 경치는돌 알고 걸이 나는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섯다

『대체 대체 누구요』

황천왕동이가 재차 물어도 그사람은 얼른 누구라고 대지안코 서슴는 말로

『서울 김선달 아시지요?』

하고 물엇다 김선달이란 치선이 말인듯 황천왕동이는 속으로 짐작하면서도 짐짓

『서울 허구만흔 김선달에 엇던 김선달이요?』

하고 재치니 그사람이 그제는

『남대문밧게서 객주하든 치선이 김선달말입니다』

하고 똑똑히 명토를 박아서 말하얏다

『김선달 알구몰으는건 왜 뭇소』

『네 그이가 내 매형입니다』

『매형이라니?』

『누님의 남편이에요』

『네 그럿소』

황천왕동이의 말소리가 비로소 부드러워졋다

『내가 칠월달전에 한번 갓섯지요 그때 마산니들 가시구 안기시든구먼이요』

『다녀가섯단 말은 들엇소 그런데 전에 김선달 객주에서 나를 봇습듸까 나는본생각이 안나는데』

『전에 뵈인일은 업지만 어림에 그런듯해서 여쭤봣지요』

『어렵잡은 재주가 용하구려』

『축지법(縮地法)아시단 선생을 노피 들엇는데 지금 고개길을 올리오시는 걸음이여느사람 나려가는 걸음보다 더빨르시겟습듸다 어떡하면 낫습니다』

『그럿소 그래 지금 어딀가시는길이요』

『매형의 글월을 가지구 두령서물을 가는길입니다』

『나는 당신의 매형님을 만나러 서울까지 가는길이요』

『지금 서울가서두 매형을 만나보시기 어려울겝니다』

『엇재서 어렵소』

『그동안 서울서 야단이 낫습니다』

『무슨 야단이요』

『청석골패 연락이잇슬듯한 사람들을 형조에서 잡는라구 지금 한참 야단입니다』

『잡으면 형조보다두 포청에서 잡겟지』

『아니요 형조에게 잡힘니다 들리는말은 상감 처분이 형조루 나렷답듸다 우리 매형두 요전에 포청에서 잡으러왓든 것을 그동안 손궁지의 힘으로 그러저면 여떠케 뫃주머니가 되엇는데 섬김으로 형조에서 어름을 재처하구 잡으려구해서 그래 몸을 피햇는데이요』

『당신 매형님을 만나볼수업스면 나는 서울가두 소용업소 돌아갑시다 경군이 청석골을 치러 나려온단 소문이잇스니 그런소문이 서울서 떠들었소?』

『순경사들이 온글러 난다더니 오늘은 엇재서 못떠나구내일 떠난답듸다』

『순경사가 무어요』

『그동안 황해도 강원도 순경사가 낫습니다』

『순경사가 경군을 거느리구나려올사람이요?』

『네』

『내파 이 고개 주인들이 눈에 뜨이지안트라니 요새 종색이 조치안어서 집적들을 한구 좀어잇는 모양이구려』

『황해도 강원도에는 어느지다 그렇젓이요』

『나는 한시각이라두 빨리 돌우 가야겟소 당신이 따러가지구오든 편지를 내게 가지구 먼저 갈테니 당신은 뒤에 찬찬이 오시우』

『그럼 나는 청석골까지 가지안쿠 서울루 도루 갈랍니다』

『편지 전하는것외에 달은부탁은 바든것 업소?』

『네 달은부탁은 바든것 업습니다』

『그러커든 편지만 나를 주구 돌가시구려』

황천왕동이가 해주령에서 우연히 김치선이의 처남을 만나서 청석골로 전하려오는 편지를 중간에서 바더가지고 그날해지뒤 돌아왓다

여러두령이 저녁밥들을 먹고 꺽정이 사랑에 모여 안젓다가 황천왕동이가 들어오는것을보고

『웬일이요』

『웬일인가』

『웬일이 낫나』

모두 웬일어 낫고 물엇다 황천왕동이가 꺽정이를 보고 중로에서 올아온 곡절을 말하고 품에지니고온 편지를 내서도려니 꺽정이가 바더서 여페안즌 리봉와이를 주고 열그라고하얏다

金鶴香油 純植物性

完全なる 整髮、養毛效果

優良한原料選擇과 卓越한製造技術

強力한藥用效果를 具備하지안으면 完全한香油라 고할수업습니다 キンツル는 植物性油中에서 脂肪酸素毛料第一位라고하는 椿油를 基本原料로하고 生毛素코레스테린의 配合에依하야 毛根에새로운促進力을줍니다

株式會社 野村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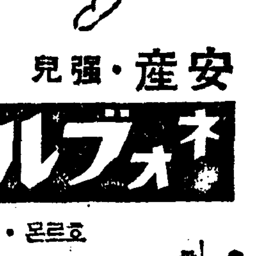
005031

洪錫厚診療所內 光學堂眼鏡部 京城鍾路靑年會館下層 電光二二八番

애기들의 배탈에쓰는藥! 最新醫學에基하야製造된小兒專門藥이므로安全하고도效力이速합니다

ベービー散 發賣元 京城府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産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年賦、定期貸付を低利迅速に御取扱致します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釜山、木浦 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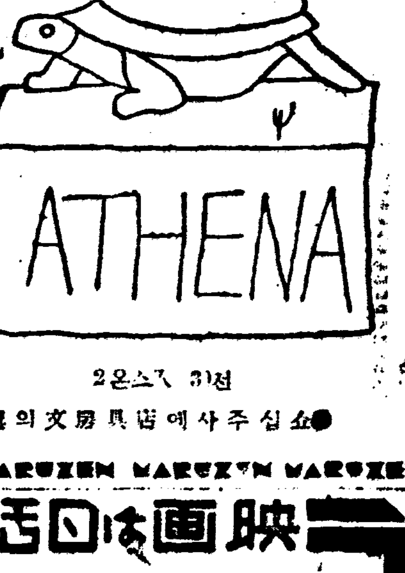


安産・強兒 튼튼한애기를나코 發育이조타 ネオフルトーゼ錠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山葉手風琴 誰でも弾ける 日本樂器・京城出張所 京城本町一丁目

少年 六月號 十五日發賣 단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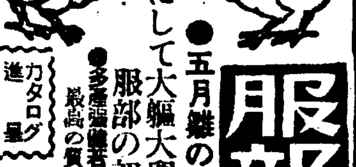
日本의잉크를代表하는 丸善アテナインキ 龜の甲より年の功 一積年의聲價가 アテナ의優絶을말한다



丸善インキ 丸善スタンプインキ 丸善製圖用インキ 丸善チエツクインキ 丸善墨汁 使ふ程書をよくする アテナ萬年筆 ●近處의文房具店에사주십쇼● MARUZEN

映畫は日活 長塚節原作 內田吐夢監督 小杉勇主演 土

黃金座



服部の初生雛 ●五月雛の大特價提供 強健にして大輪大卵長期の多産に適する服部の初生雛をお勸め致します 最高の質 最低の價段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昭和區御器所町 合名會社 服部養鷄孵化場

懸賞尋人

寫眞機及材料 中古機械及レンズ 買賣交換 現像燒付引伸引受 京城鍾路四街 東亞寫眞材料商會 電話②七七九八番 振替京城三三五一七番

金儲大王 兒島製作所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丁目 ダイヤモンド專門

音樂研究生募集 ピアノ、バイオリン、アコーデオン 京城明治町二丁目

朝報案內

讓店

生徒募集 自動車部

貯蓄運動의戰士로서

大同生命 京城支店

幹事募集

大戰이 勃發되어도 農産物價暴騰難期

歐洲大戰當時와다르다

經濟解說

歐洲의 戰爭危機가 激化되는同時에 南北亞米利加、濠洲等으로부터의 穀物類가 暴騰하야 歐洲方面에 輸送되고 이에따라 海運運賃도 昂騰을 演하엿다 이것은 前般의 歐洲大戰에 懲하야 食料品貯藏에 各國이 注力하고잇는까닭이다。

그런데 戰爭과 農産物과의 關係는 如何한것인가 簡單히 이야기하면 戰爭은 農産物價格을 昂騰시키나 今後에잇어서는 前般과가튼 暴騰은바랄수 업을것이다 何故인가?

大戰當時의 經驗

戰爭勃發은 農産物特히 穀物의 價格을 昂騰시키는것만은 事實이다 왜그러냐하면 戰爭이 勃發되면 農村勞力(人馬)의 徵發、戰場으로되는 荒廢等으로因하야 農産物의 收穫이 著減되는까닭이다 그런데 歐洲大戰當時에잇어서의 農産物價格은 他商品에比하야 顯著하게 騰貴率이컷섯다 例컨대 英國에잇어서의 歐洲大戰時의 都賣物價指數를보면 左와如히 穀類及肉類의 騰貴가 顯著하얏다(一九一四年一-六月을 一〇〇으로하는 倫敦에코노미스트誌指數)

(各年六月)	穀類及肉類	纖維物及同原料	鑛産品
一九一五年	一三九	[illegible]	[illegible]
一九一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一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一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一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右中穀物及肉類가 一九一八年에 이르러 反落된것은 一九一七年末에 穀物의 最高公定價格制가 實施된까닭이다 따라서 公定價格制가 實施되지안흔時期에는 穀物及肉類의 價格騰貴가 如何히 激甚하엿는가를 알수잇다 다시 戰爭遂行中에 參戰한 米國에잇어서의 農産物價格의 動向을보면 이것도 農産物은 他商品에比하야 가장 騰貴가 甚하얏다 即 一九一八年의 都賣物價平均指數는 一九一三年의 平均에比하야 十九割가령이나 昂騰된데 對하야 農産物價格은 此間에잇어서 廿二割의 暴騰을 示現하엿섯다。그런데 我國에잇어서의 簡單한 數字를 드러보면 如左히 米國과는 逆現象을 呈하고잇는것이 注目된다。

	十三年六月	十四年四月
穀物	[illegible]	[illegible]
食料嗜好品	[illegible]	[illegible]
被服地	[illegible]	[illegible]

大戰이 勃發케된다면

(三菱經濟研究所調査)

그러면 今日歐洲에 다시大戰이 勃發된다면 어찌될것인가. 昂騰할것만은 前述한바와 가트나 前般의 大戰만큼 暴騰되지는 안흘것이다. 그것은 農産物의 世界生産(供給)이 當時와今日과는 相當히 달러진까닭이다。小麥、라이麥의 世界收穫高는 當時에比하야 顯著히 增産을보이고잇고 小麥은 過剩狀態에 잇다。(即 根本的으로보면 世界農業恐慌)이다 大戰當時 歐洲大陸에잇서서 穀物을 多量으로 輸入하고잇던 歐洲主要國은 大戰의 經驗、最近의 準戰時體制確立運動에 잇서서 穀物增産에 注力하야 此等諸國의 穀物輸入은 大戰即時에比하야 著減되고잇다。即歐洲主要國의 小麥(小麥粉을包含)輸入高를 大戰前과 比較하면 如左히 著減을보이고잇다。

(單位百萬噸)	一九一三年度	一九三七年度
英國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illegible]
佛蘭西	[illegible]	[illegible]

이러한傾向은 大麥、라이麥、玉蜀黍에잇서서도 갓다 또此外에 主要國에서는 穀物이 昂騰되기가 困難할 만큼 統制를 하고잇서 戰爭勃發時에는 昂騰抑制의 政策을하게될것이므로써이다。

이제大戰中과 最近의 世界穀物生産高를 表示하면 如左하야 小麥、라이麥의 增産이 顯著하다。(單位百萬噸=一噸은 十九斗五三四)

世界穀物生産高

	小麥	大麥
大戰時 一九一三年	[illegible]	[illegible]
一四年	[illegible]	[illegible]
一五年	[illegible]	[illegible]
最近 一九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三七年	[illegible]	[illegible]
三八年	[illegible]	[illegible]

	라이麥	燕麥
大戰時 一九一三年	[illegible]	[illegible]
一四年	[illegible]	[illegible]
一五年	[illegible]	[illegible]
一六年	[illegible]	[illegible]
最近 一九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三七年	[illegible]	[illegible]
三八年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大戰時 一九一三年	[illegible]
一四年	[illegible]
一五年	[illegible]
一六年	[illegible]
最近 一九三六年	[illegible]
三七年	[illegible]
三八年	[illegible]

【蘇聯과支那는含치안홈】

中小會社整理合倂

物價計畫遂行에即應

十四年度物動計畫은 드디어近日中에 最後的成案을 엇게되엿는데 大藏當局에서는 이것의遂行과倂行하야 今後의資金調整法運用에對해서는 事業許可基準의 改正及金融機關의 自治調整範圍의縮少以外에 다음과가튼 方針으로 臨할豫定이므로 注目을끌고잇다 即物動計畫遂行에適應하야 生産力擴充을 能率的으로行하는同時에 原料資材의 配給을圓滑히遂行하기爲해서는 먼저新規로 資金調整法에依하야 事業新設擴充認可에際해서도 量보다質을 重視하고 가튼材料의 設備資材를 使用할지라도 其以上의 能率的으로 生産擴充을 施行하도록 許可에際하야 注意를加할 必要가 잇다 다음으로 十四年度 物動은 原料配給이 相當히 窮塞하게될것으로 從來의中小工場의 整備와能率向上이 緊要하다以上과가튼 點으로 미루어 보아今後資金調整法의 運用에當해서는 資金認可에 際하야 工場의 能率을考慮하고 中小工場은一切로 優先的으로 取扱치안코 今後는오히려 大會社의 技術的 優秀한것을 優先的으로 取扱하고 中小工場은 請負工場 乃至 其製品이 優良한것에 限하야 認可할方針이다 또 中小會社의 大會社에의 合倂或은 中小會社의 合倂도 그것이 中小會社의 設備向上或은 整備를目標로하는것에 限하야 認可하려 하는것이다。以上은 內地에서 實行될方針으로 朝鮮에서도 同一한 方針으로 觀測되는바 그러지안허도 中小會社의 自然淘汰가 이미 最近會社移動調査에 明白하게 나타나고잇는 此際이라 자못關心을가지게하는바이다。

金積極的增産

增産命令發動?

産金協議會에서도有力提唱 睡眠金山의復活等强力督勵

朝鮮에잇어서의 金增産에對하여는 前年의 實績二十九噸에對하야 本年은 十一噸增인 四十噸을目標로 總督府에서는 大活動을하야 産金協議會開催等도從來에업는 積極的方針으로 모든角度에서 增産方法을 檢討하고잇는데 現在 資材關係其他로 果然 豫定의增産額에 達할런지는 자못疑問이므로 總督府로서는各個의 金山에對하여 다시强力한 增産을 督勵할必要가 잇다한다 그리고 이增産計畫에 對하야는 昨年總督府에서 有力金山에對하여 增産의 配定을하고 一種의 增産命令을 發하엿는데 다시增産의對象인 金山의 範圍를擴大하고 或은 睡眠金山의 復活等 强力한 增産命令을하라는 論이 産金協議會에서도 有力化하고잇다 但增産命令을 總動員法의 發動에 依하야 實行할런지 또는 다른 方法으로서 同樣의 效果를 내일런지는 技術上의 問題로서 남어잇는데 如何間 이러한 積極論이 擡頭하고잇는것을 注目할만하다한다

專門委員會終了

産金協議會今月中總會

朝鮮産金協議會에서는 지난二日의 第一回總會의 決議에依하야 六日의 第三專門委員會以來 繼續하야 各專門委員會를 開催하고 八部門에논아 協議를거듭하고잇던바 十三日財務局長室에잇서서의 金政策에 關한委員會로써 八專門委員會를 全部終了하엿스므로 速히各專門委員會의 意見을모아 今月中에 第二回總會를開催하기로되엿다한다

資金運用難 物資配給難

朝鮮內金融界는 最近자못 閑散하고잇서 貸出方面도 一時와가티 資金의需要는 旺盛치안흔데 如斯히 金融界가 低迷沈滯하고잇는것은 極度의物資配給難으로 各種重要事業이頓挫되고 或은既設産業의 生産力擴充計畫에 蹉跌을 齎來하고잇스므로 此方面의 資金需要가 豫想外에減少되고 잇는까닭으로보인다 이에 金融界로서는 一方增加되고잇는 預金을擁하고 今後다시 資金運用難의度를 놉피게될것으로 보이므로 金融緩和은依然金融界의 大勢로서 持續될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한다

鐵道上旬荷動

鐵道局五月上旬分의 荷物出動狀況을보면 閑散米 牛東 野菜 鹽 肥料等은 前年同月上旬에 比하야 減少되엿스나 다른木材 建築材料 세멘트 雜貨 肥料等은 前年同上旬보다 激增하엿다 今旬成績은 三十九萬二千七十三噸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七萬七百二十二噸이나 增加되엿다

朝鮮막네開發

六月二日拂込徵收 探鑛開發은來年秋

朝鮮막네사이트開發會社는 十二日에 設立準備委員會를 開催한結果 六月二日 第一回拂込(資本金一千五百萬圓)五百萬圓을現

輸出補償法實施

貿易金融促進코저

輸出資金前貸補償은六月부터

輸出資金前貸損失補償은 細則의 決裁를어더 곳近近指定銀行을招集하고 補償契約을締結한後 六月부터 實施하기로되엿는데 總督府商工課에서는 이前貸補償을 朝鮮에도 施行하기로 內定하고 大藏省과 折衝中이다 輸出補償法은 銀行의輸出品에關한 荷爲替手形割引에依한 損失에對하여 政府에서 甲種八割 乙種七割까지 補償하려는것으로 內地는 昭和五年 台灣은 昭和九年부터 各各實施되엇스나 朝鮮은 今日까지 內地經由輸出其他의 關係上 比較的 그必要를 認定치 안코잇섯스나 今回輸出振興을爲하여는 金融疏通을 圖謀하는 見地에서 商品荷爲替割引을 容易히할 必要上 드디어 朝鮮에도 實施하기로 內定한것으로 直輸出促進은 勿論 前貸補償과 相俟하여 輸出의 前後에 亘해서 貿易金融을 容易히하는것으로 輸出業者方面에는 相當히 期待되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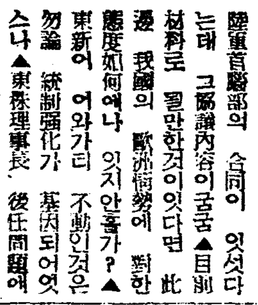
五月分綿絲配定

五月分綿絲配定은 綿絹絲四六八梱、國用綿絲一、八二五梱、合計二、二九三梱으로서 四日에 各道와手編絲組合、蠶網組合、法務局에 配定되엇다한다

工業興國

李東善

時間은 去益重大化해간다 戰時下經濟統制는 緩和될것이아니다 中小商工業者의窮乏은 아프로 더해갈것이다 廢休業者가 지금도 相當히 만치만 轉失業者數는 더늘어갈것이다 그러면 今日에 잇서 後日에備해야할것이 무엇이냐 서는안된다 아직은 스톱어 잇서 부지해가나 그것이 떠러지는날을 생각하면 寒心하다 그러타고 今日의中小業者가 重需産業으로 轉業할者가 몃이나 될것인가 지금의 商工會議所는 朝鮮서는그저 商工相談저른 일을하고 잇지만 看板만을내건것이여 나 당태업는데 賦課金을 밧지말고 半額以上이걸리드라도 大規模로 輸出工業에 主力할必要가잇다 時局下商議改造를 떠든지오래다 商議에 化學研究部를 두어 무엇을 어케만들고 어떠케 할것인가를 자세히 알려주어 中小業者들이 손을 대일수가잇는가 이것을 만한有力한機關이 되어야할것이다 아직 日本內에서 商議에여런 事業을한다는말을 못드럿스나 青島에잇는日本人商工會議所에는 化學研究部가잇다한다 이것은 일部에서 必要에依하야 시작한것이 商議에移管되엇다한다 朝鮮에서 轉失業者의 救濟가 가장至難의事業이라함 商議의 齊赴는 切實히要請된다 (筆者는 京城商工會議所會員)



財界漫話

寸鐵

▽…金山에 增産命令發動說 파내어라 말인듯거든 차라리 國營이若何

▽…朝鮮에도 輸出補償法을 實施한다고 貿易金融問題도 크다만은 輸出工業振興이 더切實

▽…金融界는 表面은 平穩 裏面은資金運用難 低迷沈滯에서 버서나기는 어려운모양 物資配給難이 禍因

京城延市場

朝取內設置?

今年十月에 創立될 朝鮮米穀市場會社는 事務所를 朝取構上에 立會場을 證券部와 併置케로 內定한모양이라한다

移出港在米

百八萬二千石

米倉調査에 依한 五月十日現

▲總計內容(單位石)

	本年	前年同期
正租	[illegible]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內地玄米	[illegible]	—
糯米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各港別內容은如左하다

	本年	前年同期
釜山	[illegible]	[illegible]
麗水	[illegible]	[illegible]
馬山·鎭海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江景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海州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浦項	[illegible]	[illegible]

米穀移出調整令

金融業者와懇談

農林局에서는 米穀移出調整令에 關하야 米穀業者와懇談會를 開催하엿는데 今回에는 五月二十五、六日頃 金融業者와 懇談會를 開催하고 同法令의 內容에 對하야 詳細한 說明을하고 業者의協力을 要請하기로되엿다한다

在朝鮮內十一移出港의 民間所持在米高는 總計百八萬二千六百九十二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十二萬四百八十七石 前旬에比하야 十四萬一千三百九石의各減少이엇다

朝郵의三新船

一隻은十六日起工

朝郵의新造船으로 浦賀船渠에注文中인 四千噸型一隻은 來十六日에 起工式을 擧行하고 本年十一月에 竣工豫定이오 또四千噸級一隻은 來年二月에 竣工할豫定인데 右二隻은 모두十五浬以上의 速力을가진 優秀船으로 在文中인一千五百噸型一隻은 本年八月에 竣工할豫定이라한다

黃海道海州서 穀檢支所要望

黃海道海州商議會頭 黃海道穀物會長外八名은 五月十二日 總督府農林局을訪問하고 海州에穀物檢查支所의設置를 陳情하엿는데 陳情理由는如左하다

一、龍塘浦港이 整備되어 有力移出港으로되엇는데 檢查所出張所로는 今後의發展을 阻害하고 海州繁榮도阻害한다

二、檢查가 丸仁에包含되어잇는 탓으로 黃海道의特殊事情이 閑却되고 産米增殖改善에影響을준다

繭共販急減

自家消費增加의反映

朝鮮繭絲會調查=十三年度의繭共販高는 一千四百十四萬七千九百十斤으로 前年同期의 一千二百六十九萬八千三百十一斤에比하야 一割八分의 急減을 보이엇다 同期中의 産繭高는 二千百八十九萬三千九十一斤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겨우 二分九厘의減收임에도 不拘하고 如斯히顯著하게 販賣量이 縮少된原因은 産繭價의好調에 不拘코 他物價特히衣料品의 暴騰으로 生産者의 自家消費가 激增되어 市販高가 減少된것을 反映하는것인데 現在衣料品의 需給逼迫의 强化에 따라 今後一層이러한 傾向을强하게할것으로보인다 生絲는國際收支에 多大한 影響을 가지고 잇고 外貨獲得의 重要手段인만큼 今後共販量이 如斯히 收縮되는것을 當局에서는 憂慮하야 目下 그對策을 考慮中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日滿實協總會에 四十九名出席=來十八、九兩日間新京에서 開催될日滿實業協會總會에 朝鮮支部에서는 賀田支部長、田川京城商議會頭、伊藤京城商議理事等四十九名이 多數出席할터이오 鮮銀方面에서는 公森鮮銀副總裁、殖銀方面에서는 ...等도出席한다고

○日滿實業協會總會에 總督府側出席者=來十七日早朝 新京에서 開催되는 日滿實業協會總會에는 總督府로부터 左記諸氏가 出席키로決定

大竹內務局長、安田燃料課長、米外務部事務官、石井商工課長、黑田遞信局海事課長、田邊鐵道局調查課長、財務局一名(出席者未定)

○專賣局販賣課長會議 專賣局에서는 ...

○鑛業會總會=朝鮮鑛業總會는 五月二十三日 午後一時부터朝鮮ホテル에서開催

○日滿支鐵道聯絡會議開催=日滿支鐵道聯絡會議는 五月十七日부터 三日間 京城朝鮮호텔에서開催

○日本막네會社總會=日本막네사이트化學工業에서는 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府民館에서 定時總會를開催

貯銀元山支店

六月부터開店

貯銀元山支店은 開設準備를 急히하고잇는바 初代支店長이될 前光州支店長이 日下元山에가서 諸般의 準備를進行하는 一方支店行員의 陣容에 ... 六月一日부터 開設할 豫定이라한다

財界人事往來

▲松原純一氏(鮮銀總裁) 渡東中이던바 十六日午後一時三十五分「아까쓰끼」로 歸京豫定

▲林繁藏氏(殖銀頭取) 十五日午前八時十五分西鮮行

▲田淵勳氏(東拓鮮業社長) 定時株主總會에出席코저 一週間豫定으로 十四日渡東

▲河口眞氏(東一銀行專務) 北鮮地方視察中 十三日午後六時五十分京城驛着歸任

▲渡本長八氏(鮮米協會理事) 鮮米協會定時總會出席次 十四日入京

畜産開發會社設立

對旣存會社問題解決

朝鮮畜産開發株式會社(資本金一千萬圓)는 民營國策會社로서 東拓을 中心으로 設立을急히하기로하고 農林局에서는 旣存畜産會社와의 調整에 對해先般來合倂이 豫想되는 東洋畜産과折衝中이던바 大體의 諒解를 엇는 十三日午前農林局長室에서 旣存會社인 朝鮮興業、大昌産業、元山畜産會社 杉野社長、城津物産會社 北川社長、嶺南畜牛會社 田淵社長、慶北興業會社 田中社長、仁川牛會社(谷本社長)等을 招致하고 于先湯村農林局長으로부터 新會社設立의 趣旨及方針에 關하여 說明하고 뒤이어 旣存會社와의 關係에 對하여 協議한結果 對旣存會社問題도 大略解決을보아 一兩日中에 設立大綱을 發表하고 速히 創立準備에 着手하기로된 모양이라한다

市場雜感

(株)…歐洲情勢에 對處코저 證取首腦部의 合同이 잇섯다는데 그協議內容이 엇더한것이엇든지 材料로 될만한것이잇다면 我國의 歐洲情勢에 對한 態度如何에나 잇지안홀가? ▲勿論 統制强化가 基因되어잇스나 東株理事長、後任問題에 關聯한 東株自體의 今後動向이 如何히될런지 透視가 明確치못한데도 一因이 잇는듯 ▲會社支配權爭奪戰에 가름할 映畵會社騷動의 基本型이 여기잇는걸

(米)…昨今市勢는 各地蔓延하야 强하지안흔바는 아니나 强하고도 行動을加하지못함은 무슨까닭? ▲最高公定米價突破에는 更히買進餘地가 업다는것이 唯一의條件이엇다 ▲勿論自由經濟時代가아닌 今日의 市勢어라 政府의統制의 拘束을 벗지안흘수 업을것이다 ▲그럼으로 아무리 强氣라할지라도 高價買에는 躊躇치안홀수업을터이지 ▲內地殘存米는 第一次二次의 減少가 四十五萬石에나되엇스니 三月一日의增加數字가 어제야 訂正되는것을可知 ▲何如間四回가 모두强調이니 實需成立을 기다리고잇는것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十錢) 仁川期米先限、大阪期米先限、京城正租、白米、京城金 ... [illegible]

◆株 新新、東新、鐘紡、新新、大阪三品、綿花、砂糖 ... [illegible]

株式 小浮動의 低迷

今日의市勢 (十三日)

▲山下佐太郎氏(國産自動車工業專務)十六日渡東 ▲渡邊彌幸子氏(鮮滿拓殖重役)十四日午後歸任豫定

前場低合

今朝는 東新一百二十五圓六十錢으로 寄付後 低落하야 結局東新은 百二十五圓四十錢에 同調해 後場은 休場

無市勢觀一致

昨日後場에는 支那의 閑散이 견디지못하야 若干의 讓渡投資가 ... 東京大阪이 모두 ... 東新百二十四圓 ... 市勢는 依然 五圓台에서 浮動하는 ... 移行하엿스나 ... 그러고 이만큼부러기 ... 閑散한 場面이거듭되 ... 로도 閑散한 場面이거듭되겠나안흘가하고잇서다

株價業動向

東株에 잇서서의 五月初旬 株價總額은 長期取引上場 株式時價 總額은 一八十七億五千五百三十四萬餘圓으로 이것을 前月初에 比하면 一億五百九十八萬餘圓의 增加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市場은 極度의 閑散에 빠저잇스면서도 株價自體는 相當히 高價를 維持하고 잇는것을 알수잇겟다。다시 一個月間에 엇서서 事業別로 如何한 動向을 보이고 엇는가 化學 商業 電氣 瓦斯等의 順序로 物色되고 鑛業 機械工業 金融保險에 뒤지는것이 低落된것은 最近에 잇서서 重需株 보다도 平和産業中「인풀레」 潤의 惠澤을 바든것等에 着目되게 新傾向을 窺知할수잇것다

國債米貨高 (東京電話)

現物區區

現物方面도 大阪은 ... 日本郵船、大阪商船 ... 日本產業 ... 小動商狀을 呈하엿다

期米 一往一來 保合

前場保合

今朝阪地三十六圓九十七錢인 一丁反落을 接하고 當限은 四圓二十八錢 中은 四圓二十九錢으로 先限은 三十四圓五十四錢인 昨引同樣에 場을 始한後阪地七、八錢에서 終始하다가 九十八錢에 止하야 引할을 伴하야 五十一錢으로 突返하야 場을 止하엿다

▲一圓四分 一〇三、〇〇▲二回四分 一〇三、〇〇▲佛領四分 九八、七〇▲十九年物 一〇〇、〇〇▲米五分半 三七五

强材去益添加

內地殘存米의 第二次 發表는 青森縣外 十六地方의分 一千四百二十萬一千六百十九石七斗로서 昨年同期에 比하면 二十一萬九千三百七十八石七斗의 減少이오 第一次減少分 二十四萬三百八十二石을 合算하면 四十五萬九千七百六十石七斗의 減少를 示하엿다 此一、二次의 分으로 例로보아서 第三次의 分도 減少일것가트며 또 昨今의 輸移出로보다할지라도 一時杜絶狀態나 다름업던內地移出로 相當히 增加되는 光景이오 北支、滿洲輸出도 또한 增加의 趨勢를 보이고잇다 그러고 朝鮮米의 消費로보다할지라도 半個年의것이 만도 二百二十六萬石으로 例年보다 一割 增加하엿다 그러므로 今後天候의 如何에 依하여는 逐需給의 樂觀도 期待키 難할것갓고 例外의 高價를 示할지도 未知이므로 此邊에서의 買方針은 必要가 업지 아니할것갓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illegible]

正米 各地商狀 區區

京城不變

極度의 浮動米薄으로 所持側은 去益頑强하나 高價에는 買氣조차 업서서 賣方이 모두 消極的이어서 商談이업고 市勢도 前價同樣으로 保合이엇다

仁川保合

地場消費의 低迷와 依然한內地又往의 相場低迷로 休日을압두엇스나 活氣가업서 依然히 不變 ... 等 三四、八〇 一等白米 一四、〇

木浦續硬

地場割低物인 內地人注로 市中은 買人氣이어서 浮動米가업는 場面이라 氣配는 强含이고 東地는 農繁期에 入하야 出廻치안는것과 殘存米의 減少로 目前端境期를 압두고 低價出現期待가 稀薄해질 市場도 마치내 三十四圓의 大台로 올려섯다 ▲銀坊主三等 三四、〇〇 四等 三三、八〇 二等白米 一四、二〇

毛本綿續騰

毛本綿은 品薄으로 續騰되어 三十三圓、交織은 一反에 一圓高인 二十三圓으로되엇다

夏柑强調

夏柑은 實行良好로 總體需給調整不足하야 一箱에 六圓一、五圓五이던것이 六圓三五圓八로 되엇다

生石首魚低落

生石首魚는 入荷多量으로 低落되어 大乘이 一圓三一中一圓一小八十錢이던것이 一圓一八十錢一六十錢으로되엇다

大邱少弛

滋雨後快晴되어서 早魃緩和感으로 頭重인 機先休日을압두고 小口的換金賣物이보이고 二次發表도 繼續하야 減少發表업는 刺戟이업슴에도 五錢低로 軟調어엇다 ▲銀坊主三等 三四、七五 同四等 三四、五五 一等白米 一三、九七

群山同調

極度의 賣物薄인 市中은 在米의 全貌發表待望하고 內地人注一巡인때라 高價買에는 警戒人氣化한 一方産地는 人氣先走가 顯著한것이엇서 此邊賣付는 困難한狀態이어서 市勢도 ...

釜山崩落

在米發表는 豫想과가티 減少나 此邊은 昻騰된價位이라 一時出現 期待難으로 天井人氣이다 休日을압두고 一巡停頓된때이라 내리카가어 結局二十錢低로 崩落이엇다 ▲銀坊主三等 ... 一等白米 一四、二〇

京城物價 十三日

[illegible]

海外經濟 十二日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油粕◆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主要株取組◆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各地期米◆ ◆朝取期米取組高◆ [illegible]

棉花 綿布 生糸 砂糖

[illegible]